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신 선 아

2011년 8월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정환

신선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신선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년 8월

<국문초록>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 선 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 진로의식 수준, 진로준비행동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연령은 13세~21세인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변수로는 개인·가정·사회적인 배경으로 구분되며 진로의식수준은 진로결정성, 진로참여성, 진로독립성, 진로타협성, 진로준비성으로 나뉘며, 진로준비행동은 정보수집활동, 필요도구 준비, 목표달성 및 사회적 노력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용한 측정도구는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

\* 본 논문은 201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비행동에 대한 검사도구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첫째, 위기요인에 대한 측정도구는 김동일, 홍성두(2006)에 의하여 제안된 청소년 위기 평정척도 중에서 위험요소를 수정하여 68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진로의식에 대한 측정도구는 Crites(1978)의 CMI(Career Maturity Inventory)를 이현립(1995)이 번역한 것을 인용하였으며 그 중 4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측정도구는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행동검사지에 이명숙(2002)이 두 문항을 추가한 척도로 18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청소년들의 위기정도,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간의 각 변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과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을 밝히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을 일반적인 특성(성별, 연령, 학업중단시기, 학업중단기간, 학업중단이유, 현 활동)에 따라 부분적으로 크게 자각 하고 있다. 먼저, 성별에서는 여성이 개인요인(불안, 신체자아)에서, 남성은 개인요인(흡연 및 음주)과 사회요인(주변 환경)에서 위기를 더 높게 자각을 하였다. 연령에서는 위기요인인 개인요인(회피중심), 가정요인(가정결손)과 진로의식수준(진로결정성)에서 부분적으로 높았다. 학업중단 시기 중 고등학교 시기인 청소년들이 위기요인의 개인요인(흡연 및 음주경험), 가정요인(양육태도)이 높았으며 학업을 중단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청소년들은 위기요인의 가정요인(양육태도)을, 2년 이상이 경우 진로준비행동(정보수집활동)을 더 크게 자각하고 있다. 학업을 중단 이유 중 학교 폭력, 학교생활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개인요인(우울, 불안, 공격성 및 충동성, 부정적 자존감, 신체자아, 회피중심)과, 가정요인(학대부모, 부모자녀관계, 양육태도, 가정결손), 사회요인(주변 환경)의 위기요인이 높았고, 진로준비행동(필요도구 준비)에서는 학습에 대한 능력 부족으로 필요 도구에 대한 준비를 한다. 학업중단 이후 현 활동은 취업기술,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들이 위기요인의 개인요인(공격성 및 충동성, 회피중심)과 가정요인(학대부

모, 부모자녀관계, 반사회적 구성원)이 높았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은 진로의식수준인 진로결정성, 진로참여성, 진로타협성에서 부적상관관계가 있으며 진로독립성에서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진로준비성에는 부분적으로 부적 및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진로준비행동(정보수집, 도구 준비 및 목표를 노력)에서는 위기요인(양육태도, 또래비행여부, 주변 환경)의 각 하위요인에서 부분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셋째, 위기요인인 사회요인(주변 환경)은 진로의식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위기요인인 사회요인(주변 환경)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변 환경과 개인요인(흡연 및 음주)은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특성(성별, 연령, 학업중단시기, 학업중단기간, 학업중단이유, 현 활동)은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보이며, 위기요인과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간에도 부분적으로 상관 및 영향이 있음을 알려준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진로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학교 밖으로 밀려나온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자신의 미래를 사고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위기요인들을 알게 하고 그 위기요인을 극복하여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학업중단청소년의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및 영향을 다루었다는데 의의를 둔다.

# 목 차

|  |    |
|--|----|
| I. 서 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 문제 및 가설                            | 3  |
| 3. 연구의 제한점                               | 4  |
| II. 이론적 배경                               | 5  |
| 1. 학업중단 청소년                              | 5  |
| 2. 청소년의 위기요인                             | 8  |
| 3. 진로의식과 위기                              | 11 |
| 4. 진로준비행동과 위기                            | 14 |
| 5. 선행연구 고찰                               | 15 |
| III. 연구방법                                | 18 |
| 1. 연구대상                                  | 18 |
| 2. 연구도구                                  | 18 |
| 3. 연구절차                                  | 20 |
| 4. 자료처리                                  | 20 |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21 |
|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                     | 21 |
| 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 26 |
| 3.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 35 |
| 4.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 37 |
| 5. 위기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39 |
| 6. 논의                                    | 41 |

|                       |    |
|-----------------------|----|
| VI. 요약, 결론 및 제언 ..... | 45 |
| 1. 요약 .....           | 45 |
| 2. 결론 .....           | 49 |
| 3. 제언 .....           | 52 |
| 참고문헌 .....            | 54 |
| Abstract .....        | 61 |
| 부 록 .....             | 65 |

## 표 목 차

|   |    |
|---|----|
| <표 II-1>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별 특징 .....                     | 7  |
| <표 IV-1> 제주지역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               | 21 |
| <표 IV-2> 학업중단의 특성 .....                             | 22 |
| <표 IV-3>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 .....                       | 24 |
| <표 IV-4>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의식수준 .....                     | 25 |
| <표 IV-5>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                     | 26 |
| <표 IV-6> 성별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차이 .....       | 27 |
| <표 IV-7> 연령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차이 .....       | 28 |
| <표 IV-8> 학업중단 시기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차이 .....  | 29 |
| <표 IV-9> 학업중단 기간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차이 .....  | 30 |
| <표 IV-10> 학업중단 이유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차이 ..... | 32 |
| <표 IV-11> 현 활동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차이 .....    | 34 |
| <표 IV-12>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            | 36 |
| <표 IV-13> 진로의식수준에 미치는 위기요인 .....                    | 37 |
| <표 IV-14>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          | 38 |
| <표 IV-15>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위기요인 .....                    | 39 |
| <표 IV-16> 위기요인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          | 40 |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분야에 들어가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인간에게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주는 필수 조건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누구나 독특한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며 존엄한 존재로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각자 나름대로 독특한 재주를 가지고 태어나며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행복은 개인의 가치관 및 개인적 목표 성취라는 측면에서 인생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삶의 행복을 위해 적기에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신과 진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수록 앞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은 더욱 커져,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결정하는 진로의 방향은, 하는 일의 종류, 만나는 사람, 보내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고 볼 때(고향자, 1992), 청소년기는 개인의 일생 중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로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로 인해, 가장 격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이후의 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진로란 개인의 전 생애 과정을 통해 일어나며 개인의 태도, 가치관 그리고 기대감을 포함한 일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진로는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 중 청소년기는 변화와 성장의 과정 중에 있는 시기라는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위기를 맞은 가능성이 높는데(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자아조절 능력이 아직 미숙하고 충동적인 경향이 강하며 자아정체감을 찾는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기 쉬운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요인과 상황적 요인들(윤철경, 이해연, 서정아, 윤경원, 김영한, 백혜정, 이봉주, 양미진, 장해영, 장명심, 2005)도 청소년들이 위기를 빠질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청소년에 대한 위기 문제가 이젠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관

심의 증가와 함께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학업 중단은, 필요한 교육 및 기술 습득에 대한 기회상실과 다양한 위험의 노출 가능성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부정적인 자아정체감, 낮은 학력으로 인한 열등감, 취업 후의 낮은 소득 등의 개인적 문제(Weicman & Friedman, 1984)뿐만 아니라 범죄와의 연루가능성(교육부, 1997), 높은 실업률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으로 보고 있다. 학업 중단 청소년과의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업 중단의 원인 및 실태를 양적방법으로 분석한 연구들(표갑수, 1993; 김경식, 1997; 이숙영 외, 1997; 박수민, 1998; 이경림, 2000; 김순규, 2001; 이혜영, 2001; 김순규, 2002; 조아미, 2002; 윤미경, 2002; 전중희, 2005; 고미숙, 2005)로 학업 중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례를 가지고 질적 방법으로 연구들(최영신, 2001; 김혜영, 2002; 박현선, 2003; 홍임숙, 2004; 성윤숙, 2005)은 사례분석, 문화기술, 현실기반이론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중단과정과 문화적 이해 및 삶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안정된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진로를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위기요인과 진로인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을 각 변인별로 따로 연구되거나 학업중단의 원인들을 알아보는 연구가 한정적이며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입이 되어야 할 진로지원체계는 일반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들에 비해 위기요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서정아 외, 2006)하다. 이에 추가적으로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 연구들이 요구된다.

구본용과 유제민(2003)은 위험요인이 증가할수록 학업중단이 증가된다고 보며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다. 진로에 미치는 위기 요인들을 사전에 파악 한다면,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진로인식 및 준비행동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 할 것이며 사회에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를 인식하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로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며, 이러한 위기로인의 하위로인들이 진로인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로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은 어떠한가?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로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로인이 진로의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로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위기로인, 진로의식 수준, 진로준비행동은 일반적인 특성(성별, 연령, 학업중단시기, 학업중단기간, 학업중단이유, 현 활동)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위기로인, 진로의식 수준, 진로준비행동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위기로인은 진로의식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위기로인의 하위로인인 개인요인은 진로의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위기로인의 하위로인인 가정요인은 진로의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위기로인의 하위로인인 사회요인은 진로의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위기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위기요인의 하위요인인 개인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위기요인의 하위요인인 가정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위기요인의 하위요인인 사회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을 제주지역 학업중단 청소년 103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위기요인의 개인, 가정, 사회요인을 제외한 변인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념 및 유형, 특징과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찰 해보고자 한다.

### 1. 학업중단청소년

#### 1)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념

학업중단자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제적 중퇴 및 휴학한 자들을 말하며, 중학교의 학업중단자는 유예 및 면제자로 정의된다. 학업중단률에 정의하여 학업중단자 수는 자료의 제한으로 1990년까지는 학업중단자에 사망자, 유학/이민자를 포함하였고 1995년에는 사망자를 제외한 유학/이민자만 포함하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사망자, 유학/이민자를 모두 제외한 순수 학업중단자만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관련 공식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업중단 청소년 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 여기서 학업은 시간이나 공간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규교육과정을 중단한 청소년으로서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학업중단은 청소년 개인의 삶의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습득이나 성장 기회의 상실, 다양한 위험 노출 가능성을 의미한다(양국선, 2001). 우리사회에서 불 때 학교에서의 중퇴는 중도탈락자라는 낙인과 낙오자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좌절 및 소외감이 증가되어 비행의 가능성이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진로에 대한 탐색이, 학업중단으로 인해 상실해가고 있다. 현 우리나라는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들이 정규 고등학력을 인정하고자 하나 주 1회 정도의 수업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청소년들을 본 연구대상자인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포함하였다.

##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원인 및 유형별 특징

학업중단을 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단순히 한 가지 요인들이 원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조아미, 2002),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Elliott(1966)는 학업중단 정학 또는 퇴학과 같이 타의에 의한 학업중단자에 대해 학습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자의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학생과 학업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기도 한다. 구자경 외(2001)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퇴하고 싶은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학교가 도움이 되지 않아서, 학교교칙을 지키기 싫어서, 학교 공부를 따라 갈 수가 없어서, 내신 성적이 나빠 검정고시를 쳐서 더 좋은 학교를 가려고, 부모님과 갈등, 일하는 것이 학교 다니는 것보다 재미 있어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빠서 등을 들고 있다. 금명자(2008)는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을, 개인, 가정, 학교, 교우, 지역사회들로 구분하였고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중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학업중단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변동성을 갖고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금명자, 권해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2004)은 학업 중단 청소년을 1010명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시점과 중요원인들을 조사하였는데, 고등학생의 경우가 대부분 학업중단이 이루어졌고 교과 흥미상실이 가장 유력한 학업중단의 원인이 되었다. 최근 학업중단 이유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변화로는 과거에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학업중단의 주 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비행이나 학교생활 부적응이 주된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 고등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들의 수는 전체 학생 수의 대하여 1~2%정도로 꾸준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청소년들이 꾸준히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구자경 외 2001; 박영

숙, 1999; 박창남 외 2001; 조아미, 2002). 그리고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때 학교를 중단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시형 외 (2002)의 연구를 살펴보면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1학년(32.8%)과 2학년(28.2%) 때 집중적으로 학교를 중단한다고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취업의 어려움, 낮은 수입, 열악한 근무조건, 건강의 약화, 범죄 촉발 환경에의 노출 등 많은 부정적 결과들에 직면하여 다양한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신현숙, 구분용 2002). 대부분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일탈 행동에 개입하거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실패감을 크게 경험하고 있음으로 학업중단의 부정적인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배영태, 2003; 손승영 외 2003; 이소영, 2000; 최정자, 2007). 학업중단 청소년은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은 교육적인 문제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심리적, 경제적 위기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을 가진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유형 구분에 관한 연구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유형별 특징을 <표-1>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1>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별 특징

| 유형              |       | 특징                                     |                                       |
|-----------------|-------|--|---------------------------------------|
| 이시형 외<br>(2002) | 자기탐구형 | 스스로 학교를 떠나 원하는 목표를 추구                  |                                       |
|                 | 혼란형   | 학업중단의 확고한 의지가 없고 특정한 대안을 선택 못해 우왕좌왕 유형 |                                       |
|                 | 탈출형   | 현실 회피적으로 무작정 학교를 나오고 싶어 함              |                                       |
|                 | 자포자기형 | 퇴학통보 등 부적응 경험으로 불안해함.                  |                                       |
| 박창남 외<br>(2001) | 정착형   | 진학지향형                                  | 일정기간 방황하다가 학업을 계속함                    |
|                 |       | 취업지향형                                  | 취업(일자리)을 원함.                          |
|                 | 비정착형  | 직업훈련형                                  |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 참여                      |
|                 |       | 시설수용형                                  | 범죄 행위등 처벌을 받아 강제 시설 수용                |
|                 |       | 방치형                                    | 가출 등 비행 성향이 있으며 주로 쉼터, 보호 시설에 머무르고 있음 |

이 외에도 Marrow(1986)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바람직하지 않은 학생으로 판단되어 밀려나는 학생, 둘째, 학교와 관련되기

를 원하지 않는 비제휴형 학생, 셋째, 학교의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한 교육적 사망자, 넷째, 능력은 있으나 가정에서의 사회화가 학교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아서 중퇴하는 학생들, 다섯째, 결국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중퇴자인 중지자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인데, 사회적인 범죄, 비행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도움이 더욱 더 필요한 실정이다.

## 2. 청소년의 위기 요인

### 1) 위기의 개념 및 특징

위기란 ‘위험한 고비나 시기’의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위기는 본 논문에서는 부정적인 질풍노도의 시기라 할 수 있다. Campas, Hinden & Gerhard(1995)는 위험요소 부적응적인 발달 산물과 관계되는 개인 또는 환경적인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박현선(1999)이 위험요소의 대한 Campas 외(1995)의 정의에 동의하며 실직 가정의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위험요소로 가정의 경제적 빈곤, 부모의 비일관적이고, 처벌적인 양육, 갈등적 가족환경,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 저하 등의 환경적 위험요소와 청소년의 정서적인 우울, 소회감 등의 개인적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위험요소를 정의함에 있어 부적응적인 발달 산물과 관계되는 개인 또는 환경적인 특성들로서 특정 장애에 대한 유전적인 소인, 다루기 힘든 기질과 같은 개별적인 특성과 스트레스 정도가 큰 외상성의 생활사건, 만성적인 빈곤, 역경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포함되기도 한다(Campas, Hinden & Gerhardt, 1995; Swardi 1999).

즉, 위기요인은 일반 집단의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인(Germezy, 1985) 혹은 한 개인이 평균적인 다른 사람들에 비해 발달상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높아지도록 하는 특성 및 변인(Pollard, Catalano, Hawkins & Arthur 1999)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의 위기상황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적 위기상황인 청소년 중 빈곤 93만명(보건복지부, 2005), 이혼가정 15만명(통계청, 2004)이며 교육적 위기상황으로는 학습 부진 779만 6천명(교육인적자원부, 2004), 개인적 위기상황으로 흡연 25만명, 음주 240만명(이상 국민건강증진연구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4) 사회적 위기상황으로 폭력피해 15만명(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기타로 청소년 실업자 수는 22만명(통계청, 2004)이다. 청소년범죄 발생건수의 증가와 가출, 폭력 등의 증가는 청소년의 위기로 표현되는 일탈행동이 어떻게 형성이 되며 청소년기 동안 어떠한 변화양상을 거쳐 가는 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2) 위기의 구성요인

위험요인은 다양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 영역은 서로 독립적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윤은희, 2007). 윤철경(2005)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네 가지 위기상황으로 개인적 위기상황, 가족의 위기상황, 교육적 위기상황, 사회적 위기상황을 열거하는데 청소년의 위험요소는 복합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한다. 한국청소년상담원(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연구, 2006)은 청소년의 위기행동에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환경(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성 등)과 학교환경(친구관계, 교사관계 등)이 포함되며 개인특성으로는 심리특성(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등)과 행동특성(학교폭력 행동, 학교 처벌 경험, 학업성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로인을 개인요인, 가정요인, 사회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위기로인의 개인요인 측면으로는 낮은 충동자제력과 반항적 성형(유성경, 2000)과 개인이 가진 공격적 성형(신현숙 외, 2004; 지승희 외, 2001), 위험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Bogenschneider 외, 1994) 등이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신체적 특징(Lipsey & Derzon, 1999)이 개인적인 측면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데, 정서 및 개인이 가진 심리적인 문제(유성경, 이소래, 송수민, 2000)나 우울, 불안 등의 개인 내적 특성(신현숙 외, 2004; 지승희 외, 2001)등이 이에 속한다.

위기요인의 가정적인 측면으로는 먼저 가족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결손(김연정, 2004; 유성경, 안희정, 이소래, 오익수, 1999; 유성경, 송수민, 2000; Lipsey & Derzon, 1999; Bogenschneider 외, 1994)을 들 수 있으며, 가족의 구조적 결손 혹은 깨어진 가정 역시 청소년의 위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로서 작용한다(김연정, 2004; 오승환, 2001; 유성경 외, 1999; Lipsey & Derzon, 1999 Paschall Ennett, & Flewelling, 1996; 전재일 외, 1990). 가정불화(유성경 외, 1999; Paschall, Ennett, & Flewelling, 1996; Bogenschneider 외, 1994)와 갈등적 가족분위기(지승희 외, 2001; Bogenschneider 외, 1994), 부부갈등(유성경 외, 2000)도 위기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모의 거부적, 비밀관적인 부정적 양육태도(유성경, 2000, 지승희 외, 2001)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 및 비행행동에 대한 태도(Lipsey & Derzon, 1999)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유성경 외, 2000), 부모의 방임과 가족규범의 부재 및 혼선(Bogenschneider 외, 1994)도 청소년의 위기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위기요인의 낮은 학업성적(유성경 외, 2000; 권지은, 1998; Bogenschneider 외, 1994) 및 학업수행 실패(Lipsey & Derzon, 1999)를 위기요인으로 들 수 있으며 또래집단 측면으로는 비행 및 일탈행동을 하는 또래와의 접촉(유성경 외, 2000; 전중철, 2000; 지승희 외, 2001; Lipsey & Derzon, 1999)과 또래 집단의 동조압력(김선남, 1994; 한상철, 2004), 또래집단과 비행유대(권지은, 1998; Bogenschneider 외, 1994)등을 들 수 있다. 또래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혹은 또래의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일탈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최은영 외, 2005).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비행은 또래와 함께 저질러지는 경향이 있으며, 청소년 비행에 있어 다른 어떤 변인보다 강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또래의 영역이다(권지은, 1999). 사회적 유대감의 부족(유성경 외, 2000; Lipsey & Derzon, 1999)이나 사회활동의 미참여(권지은, 1998), 반사회적 행동을 허용하는 분위기의 지역사회(Bogenschneider 외, 1994) 등을 들 수 있다.

Garmezy(1983)가 위험요소를 일반집단의 청소년과 비교하여 청소년이 어떤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 보았으며 Smith and Carlson(1997)은 이러한 요인에 개인의 특성과 가족, 학교 및 또래, 지역사회 또

는 이들 요인간의 상호작용이 포함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청소년상담원(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연구, 2006)은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더 많은 위기상황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재학청소년들 보다 높은 비율의 위기 수준이 책정이 되었다. 특히 음주 및 흡연, 가출이 높은 빈도를 보이며 일반 청소년들의 비해 은둔형, 부모의 유기, 자살시도, 가정폭력, 절도, 게임과다 등이 발생빈도가 높았다.

윤철경 외(2005)에 따르면 청소년 개인은 위기요인 중 한 가지에 속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한 가지 이상의 복수의 위기요인에 처하기 쉽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위기요인을 개인요인, 가족요인, 사회요인으로 나누어 구분하고자 한다.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비교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학교에 잘 적응하는 집단과 부적응적인 집단 간에는 집단충동/공격성, 우울/포기성향, 잦은 생활사건, 역기능적 가족 기능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양국선, 2001).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밖으로 활보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는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위기요인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위기요인들이 진로에 영향을 주는지 본 연구에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 3. 진로의식과 위기

#### 1) 진로의식의 개념 및 특징

진로는 Career를 번역한 용어로서 직업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는데, Cichran (1994)은 진로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한 사람의 일생의 과정으로 규정하였는데, 진로의 개념을 행위와 시간적 조직을 포함하였으며 삶의 생산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진로는 어떤 것이 발생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삶의 과정을 강조하는 진로는 표상이나 인지적 도식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진로의식은 진로의식 발달의 측면에서 '직업적 자아 주체성의 형성'으로서 자신의 제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며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인

식하거나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강무석, 박영숙, 1984). 진로의식의 대한 사전적 정의는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에서 개인이 일의 진가와 진로선택의 준거를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 개인의 진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조, 즉 가치관, 직업관, 진학관, 자아개념 등을 포함하는 의식체계’(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1981)이며 또한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에서 개인이 일의 진가와 진로선택의 준거를 이해 할 수 있으며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한달현, 1992)을 말한다.

한 개인의 진로의식 발달 수준은 그 개인이 현재 보이는 행동이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층에 기대되는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진로 결정을 위해 고민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재창 외, 1983; 김충기, 1982)의 자기 평가나 직업정보는 정확하지 못하고(김건선, 1978; 김승오, 1976),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한 갖지 못한 것으로(유기섭, 1975) 나타났다 더불어 미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발달심리학 관점에서 정리하면 대체로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진로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자기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게 되며, 고등학교에 가면 진학이나 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고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 경남숙(2008)은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의식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진로의식은 성별, 학력, 학업성적, 가족 구성형태,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개인, 가정, 환경적 배경에 따라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허나, 이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에 일반청소년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 청소년만을 위한 진로 이해가 필요하다. 최진효(2005)의 연구에서는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의식을 알아보았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졸업 후 진학과 취업 희망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취업보다는 진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학이나 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고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맞는 진로 발달과 선택을 위해서 진로와 관련된 심리검사나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 받고 있는데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학교를 이탈을 하였기에 청소년 시기에

달성해야 할 발달과업에 대한 기회를 잃게 된다. 허나 주금옥(2002)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진로개척에 실패하였지만, 상당수가 학업중단 이후 다시 진로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숙영 외(1997)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뚜렷한 생각을 가졌더라도 학업에 대한 불안과 갈등을 경험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자신에 대한 통찰을 회피하기도 한다.

## 2) 진로의식수준의 구성요인

Crites(1961)는 진로의식을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도의 정도를 개화하고 있는데, 진로의식은 진로에 대한 성향과 사고를 토대로 진로를 선택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얼마나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현실과 타협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진로의식수준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

① 진로결정성 : 자신의 진로문제에 관해 안정감과 확신을 갖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높은 점수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며, 반면에 낮은 점수는 진로 선택에 있어 혼란을 느끼는 것을 나타낸다.

② 진로참여성 : 자신의 진로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관여하는가를 의미한다. 높은 점수는 직업을 통해 삶의 의미나 보람을 찾으려 하는 마음 자세로 자신의 진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얻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응로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고, 반면에 낮은 점수는 직업에 대해 별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진로가 저절로 결정될 것이라는 안일하고 막연한 생각으로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③ 진로독립성 : 자신의 진로문제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는가를 나타낸다. 높은 점수는 주체성이 높음을, 낮은 점수는 의존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④ 진로준비성 : 진로 선택 시 일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에 있어서 선호도와 진로선택에 필요한 사전이해와 성향을 나타낸다. 높은 점수는 자신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준비를 잘 하는 것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준비를 잘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⑤ 진로타협성 : 진로 선택 시 자신의 욕구와 현실을 조화시켜 타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높은 점수는 두 가치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현실 감각을 가진 것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자신의 욕구와 현실적 여건을 잘 조화시키지 못하여 내적인 혼란과 갈등을 겪는 것을 나타낸다.

#### 4. 진로준비행동과 위기

##### 1) 진로준비행동 개념 및 특징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데 진로결정을 하거나 선택하는 일도 분명히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맞이하는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이며 진로선택을 미리 예견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행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김봉환, 1997). 이처럼 진로준비행동이란,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을 말한다.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개인의 진로는 발달단계 맞추어 이루어진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는 진로를 준비하고 행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낮은 진로준비행동을 나타내는데(박완성, 2002) 심지어 대학생 또한 진로준비행동 연구를 보면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봉환, 1997; 최동선, 2003) 여기에 학업중단 청소년은 더 낮은 진로준비행동으로 예상이 된다.

황선미와 신현숙(2007)은 고등학교 재학생과 진로훈련을 받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준비,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의 관계 모형을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관계모형이 두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진로준비와 결정 수준에서도 차이가 없었고 진로장벽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재학생들의 비해 더 낮은 수준만 보일뿐이다.

## 2) 진로준비행동의 구성요인

우리나라에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관심은 김봉환(1997)에 의해 진로분야의 필수적인 한 가지 탐구영역으로서 개념화가 시도되었는데 진로준비에 있어서 인지나 태도적 차원 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을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정보수집활동이다. 자기 자신에게 관한 정보와 더불어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도 포함이 되는데 이 같은 정보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효과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로를 위한 필요한 기자재 등 구입하거나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설정된 진로 목표를 이루는데 각종 도구들을 일컫는다. 셋째, 사회적인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되는 활동 등을 말한다. 이제경(2004)은 '직업탐색행동'으로 취업가능성이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취업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는 일련의 구체적 행위를 '취업준비행동'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활동에 어려움이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 5.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통제변수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들고 있다. 구본용과 유제민(2003)은 학업중단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강조하는데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증가할수록 학업중단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으며 위험요인에는 우울정도, 흡연, 음란물시청, 임신여부, 가정의 경제적 수준, 교우관계, 친구에 대한 교사 평가, 학업성적, 무단결석, 지각빈도, 전학경험 등이 포함이 되는데 연구자들은 학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요인은 감소시키는 것이 전략이라고 제안한다. 김옥엽, 이연숙, 원유미(2006)은 전라북도 청소년 학업중

단에 대한 의식 및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분석을 하였는데, 초·중·고 학업중단 무경험 학생 집단과 학업중단 경험 학생집단을 별도로 표집 하여 학업중단에 대한 의식실태를 파악하고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는데, 학업중단 무경험 학생집단 중 51.0%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싶었던 위기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시기는 1학기 초와 말에 43.9%가 집중되어 있었다. 실제로 학업중단 경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가 1학기 초 21.2%, 1학기 말 16.5%라는 점에서 1학기 초와 말이 학업중단의 위험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위험요인으로서는 시험성적, 따돌림, 선생님 꾸중, 가정문제 순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학업중단 경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했던 요인은 가정적인 문제, 선생님 꾸중, 따돌림, 성적순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업중단 위기가 있었을 지라도 학업을 지속하게 했던 보호요인으로서는 하고 싶은 일, 부모님, 졸업장이 필요한 사회, 친구의 조언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 분석한 결과 학업중단 무경험 학생 집단에서는 학교환경, 부정적 감정, 아버지 학력과 부모 소득이 낮을수록 위험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중단 무경험 학생집단과 학업중단 경험학생집단을 합한 전체 집단에서는 시 지역, 고등학교, 가족형태, 스트레스, 부정적 감정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에 대한 요소들을 파악한다면 진로에 대한 개입이 수월해진다고 보는데, 실제로 안현의, 이소용, 권혜수(2002)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212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학교를 떠나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였는데 결과, 원하는 직업이나 진로선택(33.5%), 경제적 자립(12.3%), 원하는 학교의 진학(10.4%) 순으로 나타나며, 학교를 그만두고 가장 필요했던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안학교(25.9%), 진로상담(20.5%), 심리상담(2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진로와 관련된 지원임을 지적하면서 황선미와 신현숙(2007)은 고등학교 재학생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준비, 진로장애 및 진로결정의 관계모형을 검증하였는데 진로준비와 결정수준은 차이가 없었으나 진로장애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다고 한다. 학업중단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연구자들을 해

석하고 있다. 한복남(2004)의 연구를 보면,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연구로 개인요인, 가정환경요인, 사회적 지지체계와 진로결정과의 상관관계는 모두 의미 있게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진로연구는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진로지도 및 진로지원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내 거주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연령은 13세~21세로 총 103명(남자 41명, 여자 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진로의식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칠 것으로 고려되는 위기요인(개인·가정·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103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연구도구

##### 1) 위기요인 질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기요인에 대한 측정도구는 김동일, 홍성두(2006)에 의하여 제안된 청소년 위기평정척도에는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중 위험요소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위기요인은 크게 개인, 가정, 사회로 구성되는데, 개인요인의 하위요인은 우울, 불안, 공격성 및 충동성, 부정적 자존감, 신체적 자아, 흡연 및 음주경험, 회피중심이며, 가정요인의 하위요인은 학대부모, 부모자녀관계, 양육태도, 반사회적 가정구성원, 가정결손이며, 사회요인은 학업성적에 대한 흥미, 또래의 비행여부, 주변 환경으로 나뉜다. 이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6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저 68점에서 최고 340점이다.

윤은희(2007) 연구에서 936명(남자 618명, 여자 328명)의 전국 규모 표집을 대상으로 위험요소 Cronbach's  $\alpha$ 는 .624-.868에 위치하여 대체로 내적 일관성이 높았으며, 본 연구 Cronbach's  $\alpha$ 는 .944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2) 진로의식수준 질문지

진로의식에 대한 측정도구는 Crites(1978)의 CMI(Career Maturity Inventory)를 이현림(1995)이 번역한 것을 인용하였으며 그 중 47문항인 5개의 하위요인(진로결정성, 진로참여성, 진로독립성, 진로준비성, 진로타협성)으로 구성되며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보통,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범위는 47점~2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의식수준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의식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로 진로에 대한 성향과 사고를 토대로 진로를 선택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얼마나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현실과 타협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경남숙(2008)의 연구에서는 9세~24세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325명(남 171명, 여 154명) 대상으로 Cronbach's  $\alpha$  .82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31이었다.

##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측정도구는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행동검사지에 이명숙(2002)이 두 문항을 추가한 척도로 18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8개 문항 3개의 하위요인(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의 준비,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보통,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범위는 18점~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Cronbach's  $\alpha$  .86으로 나타났다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906으로 나타났다.

## 4) 통제변수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미칠 것으로 보이

는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연령, 학업중단시기, 학업중단기간, 학업중단 이유, 현 활동 등을 통제변수로 두었다.

### 3. 연구절차

2011년 3월 초부터 4월 7일까지 40일 동안 검정고시학원, 청소년야간학교에서 41부를 수거하였고 그 외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62부를 수거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다양하지 않아 설문을 조사·수거하는 시간이 비교적 지체되어 이에 학업중단 조사수량이 103부로 그쳤으며 그 중 연구의 목적으로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 103부의 설문지를 전부 통계·분석하였다. 기관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우 담당자에게 질문지에 대하여 숙지하게 하여 실시하였으며,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 조사를 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검사의 성격상 절차와 내용에 대해 익명상의 비밀 유지와 사용 용도에 대해 알려주었다.

### 4.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청소년들의 위기정도,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간의 각 변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과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을 밝히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

####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지역에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으로서, 검정고시학원·청소년야간학교를 다니는 청소년 중 41명과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6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103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가족관계를, 학업중단에 따른 변인으로는 학업중단 시기, 학업중단기간, 학업 중단 이유, 현재하고 있는 일 등을 살펴보았으며 본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자면, 다음 <표 IV-1>와 같다.

<표 IV-1> 제주지역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      |           | (n=103) |       |
|------|-----------|---------|-------|
| 변인   |           | 빈도(명)   | 비율(%) |
| 성별   | 남         | 41      | 39.8  |
|      | 여         | 62      | 60.2  |
| 연령   | 만 13세     | 1       | 1.0   |
|      | 만 14세     | 3       | 2.9   |
|      | 만 15세     | 8       | 7.8   |
|      | 만 16세     | 12      | 11.7  |
|      | 만 17세     | 28      | 27.2  |
|      | 만 18세     | 20      | 19.4  |
|      | 만 19세     | 22      | 21.4  |
|      | 만 20세     | 5       | 4.9   |
|      | 만 21세     | 3       | 2.9   |
|      | 만 23세     | 1       | 1.0   |
| 가족유형 | 할아버지      | 7       | 2.9   |
|      | 할머니       | 17      | 7.1   |
|      | 외할아버지     | 2       | 0.8   |
|      | 외할머니      | 4       | 1.7   |
|      | 아버지       | 69      | 29.0  |
|      | 어머니       | 66      | 27.7  |
|      | 양아버지      | 2       | 0.8   |
|      | 양어머니      | 2       | 0.8   |
|      | 형제자매      | 61      | 25.6  |
|      | 기타(친척,없음) | 8       | 3.4   |

우선, 성별은 남자 41명(39.8%), 여자가 62명(60.2%)로 여학생이 더 많았으며, 대상자의 연령은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 분포되었고 그 중 만 17세가 28명(27.2%), 만 19세가 22명(21.4%), 만 18세가 20명(19.4%) 등 순으로 평균 만 17세의 분포를 보였다. 조사 대상자의 가족 유형을 보면 중복응답의 설문이므로 전체 238의 응답수가 있었는데 가장 응답수가 많은 아버지가 69명(29%), 어머니 66명(27.2%), 형제자매 61명(25.6%), 할머니 17명(7.1%), 기타로 친척과 살거나 혼자 사는 경우가 8명(3.4%), 외할머니 4명(1.7%), 외할아버지와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2명(0.8%)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학업 중단과 관련된 학업중단의 시기, 학업중단의 이유, 학업 중단 이후 현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IV-2>와 같다

<표 IV-2> 학업중단 특성

| 변인     | 빈도(명)        | 비율(%) |      |
|--------|--------------|-------|------|
| 학업중단시기 | 초등학교         | 2     | 1.9  |
|        | 중학교          | 27    | 26.2 |
|        | 고등학교         | 74    | 71.8 |
| 학업중단기간 | 1년 미만        | 38    | 36.9 |
|        | 1년 이상 2년 미만  | 32    | 31.1 |
|        | 2년 이상 3년 미만  | 21    | 20.4 |
|        | 3년 이상        | 12    | 11.7 |
| 중단이유   | 친구문제         | 18    | 10.0 |
|        | 선생님과 관계      | 16    | 8.9  |
|        | 학교폭력         | 6     | 3.3  |
|        | 학습능력 부족      | 16    | 8.9  |
|        | 학업스트레스       | 26    | 14.4 |
|        | 학교생활 부적응     | 26    | 14.4 |
|        | 학업흥미/학업동기 부족 | 30    | 16.7 |
|        | 경제적 어려움      | 23    | 12.8 |
|        | 기타           | 19    | 10.6 |
| 현 활동   | 학교복학*        | 4     | 3.3  |
|        | 학교진학*        | 2     | 1.6  |
|        | 대안학교**       | 2     | 1.6  |
|        | 학원(검정고시 등)   | 67    | 54.9 |
|        | 일자리 취업       | 14    | 11.5 |
|        | 취업기술훈련       | 4     | 3.3  |
|        | 소년원          | 0     | 0.0  |
|        | 보호관찰         | 6     | 4.9  |
|        | 집을 떠나 살고 있음  | 6     | 4.9  |
|        | 집안일 돕거나 놔    | 13    | 10.7 |
|        | 기타           | 4     | 3.3  |

\* 제주지역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예정), \*\* 도내 청소년야간학교

학업중단 변인을 살펴보면, 우선 학업을 중단한 시기는 고등학교로 74명(7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중학교 27명(26.2%), 초등학교 2명(1.9%)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시형 외(2002)의 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1학년(32.8%)과 2학년(28.2%) 때 집중적으로 학교를 중단한다고 한다.

그리고 학업을 중단한 기간으로는 1년 미만이 38명(36.9%)으로 차지하였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32명(31.1%), 2년 이상 3년 미만은 21명(20.4%), 3년 이상이 12명(11.7%)로 차지하였다. 중·고등학교의 전체 학생의 수에 대하여 1~2% 정도로 꾸준히 중단한다고 하는데, 이는 매해 학업을 중단한지 얼마 되지 않은, 다수의 청소년들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학업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면 학업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부족한 것으로 해당하는 청소년 30명(16.7%)이 가장 많았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부적응이 각 26명(14.4%), 경제적 어려움 23명(12.8%), 기타-유학, 본인의 의지가 없음-19명(10.6%), 친구문제 18명(10%), 학습능력부족과 선생님과 관계에서는 16명(8.9%), 학교폭력 6명(3.3%)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07)은 학업중단 이유 중에 주목해야 할 변화로 경제적인 빈곤을 들고 있으며, 이해영(2001)은 학교중퇴의 원인을 학업동기 부족, 학교생활에서의 좌절감, 소외감, 학교 부적응 등의 요인을 들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학업과 관련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들을 들고 있다.

학업을 중단 후 현 활동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자면, 검정고시 공부하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 67명(54.9%)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 자리를 위해 취업한 청소년은 14명(11.5%), 집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노는 청소년이 13명(10.7%), 집을 떠나 살거나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이 6명(4.9%), 학교를 복학하거나 취업하기 위해 기술을 다니거나 기타로 운동, 공부 등이 4명(3.3%), 학교를 전학가거나 청소년야간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 2명(1.6%)으로 차지했으며, 소년원은 대상에 없었다. 윤여각 외(2002)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열악한 환경에서 불완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며 비행에 빠져들 우려가 높다고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거나 취업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분포가 많은 것을 엿볼 수 있는데 금명자 외

(2005)에서는 학교를 그만 둔 후 활동에 대해 아르바이트가 65.8%, 검정고시학원 30.2%, 취업이나 직업전문학교가 15% 정도로 나오는데, 대부분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학업, 취업에 대한 활동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 특성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은 개인요인(우울, 불안, 공격성 및 충동성, 부정적 자존감, 부정적 신체자아, 흡연 및 음주경험), 가정요인(학대부모, 부모자녀관계, 양육태도, 반사회적 가정구성원, 가정결손), 사회요인(학업흥미, 또래의 비행여부, 주변 환경)으로 각 하위 요인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 IV-3> 학업중단 청소년 위기요소(N=103)

| 하위요인 | M         | SD   |      |
|------|-----------|------|------|
| 개인요인 | 우울        | 2.30 | .84  |
|      | 불안        | 2.73 | 1.00 |
|      | 공격성/충동성   | 2.79 | .73  |
|      | 부정적 자존감   | 2.88 | .92  |
|      | 신체자아      | 2.53 | .84  |
|      | 흡연, 음주경험  | 3.30 | 1.02 |
|      | 회피중심      | 2.65 | .89  |
| 가정요인 | 학대부모      | 2.09 | 1.06 |
|      | 부모자녀관계    | 2.43 | .97  |
|      | 양육태도      | 2.03 | .69  |
|      | 반사회적가정구성원 | 2.04 | .89  |
|      | 가정결손      | 1.88 | .76  |
| 사회요인 | 학업흥미(저조)  | 3.03 | .99  |
|      | 또래의 비행    | 2.26 | .81  |
|      | 주변 환경     | 2.19 | .83  |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위기요인에서 개인요인은 흡연, 음주경험(M=3.30)의 점수가 높았으며, 가정요인은 부모자녀관계(M=2.43)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대부분 부모의 사망, 이혼, 재혼 등 가족 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연구들이

많다.(Astone & McLanahan, 1994; Harris, 1983; Haveman, Wolfe & Spaulding, 1991). 사회요인은 학업에 대한 흥미(M=3.03)로 이는 낮은 학업성적으로 학업에 대한 실패를 들 수 있다(Lipsey & Derzon, 1999).

청소년위원회(2005)에서는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 3)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의식수준 특성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으로 알아본 진로의식수준에 평균점수는 다음 <표 IV-4>와 같다.

<표 IV-4>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의식수준(N=103)

| 하위요인  | M    | SD  |
|-------|------|-----|
| 진로결정성 | 3.24 | .39 |
| 진로참여성 | 3.49 | .50 |
| 진로독립성 | 3.56 | .61 |
| 진로준비성 | 3.18 | .50 |
| 진로타협성 | 3.16 | .50 |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의식수준은 5점 기준으로 하위 요인들을 살펴보면, 진로에 대한 독립성(M=3.56)으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진로참여성(M=3.49) 또한 진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참여하고자 하며, 진로결정성(M=3.24)도 진로의 준비에 안정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진로준비성(M=3.18)은 진로선택에 대해 사전 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보이며, 진로타협성(M=3.16)은 현실과 조화시켜 타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김선아(2008)의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의 지지원을 떠난 이들이 가정 또한 해체되거나 편부모가정이 많은 편이기에 진로에 대해 이들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가 두드러진 것이며 취업, 김정고시 학원 등을 다니는 청소년들이 직업의 준비 및 참여를 하고 있기에 진로준비성 또는 진로참여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 4)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특성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살펴보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필요한 도구의 준비(M=2.48), 정보수집활동(M=2.40),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M=2.39) 순으로 점수가 분포되어 있으며, 다음 <표 IV-5>와 같다.

<표 IV-5>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준비행동(N=103)

| 하위요인        | M    | SD  |
|-------------|------|-----|
| 정보수집활동      | 2.40 | .78 |
| 필요한 도구의 준비  | 2.48 | .79 |
| 목표달성 사회적 노력 | 2.39 | .78 |

이경상 외(2003)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에 대해 살펴보면 진학형이 58%, 취업형이 20.9%,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 10.2% 순으로 본 연구에도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많아 정보수집, 도구의 준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지원기관을 찾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이나 학원 등을 찾아다니며 시행착오를 하고 있으며 이에 진로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에서 정보를 얻거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있음을 알 수 있겠다.

## 2. 학업중단 특성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차이

### 1) 성별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차이

성별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차이는 다음 <표 IV-6>과 같다.

<표 IV-6> 성별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구분         | 남(n=41)  |          | 여(n=62) |      | t    | P     |        |        |
|------------|----------|----------|---------|------|------|-------|--------|--------|
|            | M        | SD       | M       | SD   |      |       |        |        |
| 위기<br>요인   | 개인<br>요인 | 우울       | 2.19    | .87  | 2.37 | .82   | 1.157  | .285   |
|            |          | 불안       | 2.48    | 1.02 | 2.89 | .97   | 4.168  | .044** |
|            |          | 공격성/충동성  | 2.79    | .83  | 2.78 | .66   | .001   | .972   |
|            |          | 부정적 자존감  | 2.79    | .98  | 2.94 | .87   | .649   | .422   |
|            |          | 신체자아     | 2.30    | .91  | 2.68 | .77   | 5.063  | .027** |
|            |          | 흡연, 음주경험 | 3.58    | 1.03 | 3.12 | .98   | 5.275  | .024** |
|            |          | 회피중심     | 2.49    | .92  | 2.76 | .85   | 2.277  | .134   |
|            | 가정<br>요인 | 학대부모     | 2.21    | 1.25 | 2.01 | .92   | .897   | .346   |
|            |          | 부모자녀관계   | 2.48    | 1.03 | 2.39 | .94   | .212   | .646   |
|            |          | 양육태도     | 2.16    | .76  | 1.95 | .63   | 2.378  | .126   |
| 반사회가정원     |          | 2.11     | .90     | 1.99 | .88  | .497  | .482   |        |
| 가정결손       |          | 1.93     | .81     | 1.85 | .74  | .322  | .571   |        |
| 사회<br>요인   | 학업흥미(저조) | 3.00     | 1.04    | 3.05 | .97  | .051  | .822   |        |
|            | 또래의 비행   | 2.34     | .69     | 2.21 | .88  | .554  | .459   |        |
|            | 주변 환경    | 2.39     | .92     | 2.06 | .75  | 4.092 | .046** |        |
| 진로의식<br>수준 | 진로결정성    | 3.16     | .43     | 3.29 | .36  | 2.437 | .122   |        |
|            | 진로참여성    | 3.46     | .50     | 3.51 | .50  | .236  | .628   |        |
|            | 진로독립성    | 3.54     | .57     | 3.58 | .62  | .106  | .745   |        |
|            | 진로타협성    | 3.14     | .53     | 3.21 | .47  | .535  | .466   |        |
|            | 진로준비성    | 3.06     | .53     | 3.22 | .48  | 2.622 | .109   |        |
| 진로준비<br>행동 | 정보수집활동   | 2.45     | .78     | 2.36 | .78  | .277  | .600   |        |
|            | 필요도구 준비  | 2.50     | .77     | 2.45 | .81  | .094  | .760   |        |
|            | 목표달성노력   | 2.35     | .73     | 2.41 | .82  | .112  | .738   |        |

성별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위기요인의 개인요인, 사회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개인요인의 불안( $t=4.168$ ,  $P<.05$ ), 신체자아( $t=5.063$ ,  $P<.05$ )는 여성이, 흡연 및 음주경험( $t=5.275$ ,  $P<.05$ ), 사회요인의 주변 환경( $t=4.092$ ,  $P<.05$ )은 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위기요인을 크게 인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옥실(2009)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불안, 신체적 자아가 높았으며 이를 현대 여성의 남녀 평등주의적,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위기요인은 부분적으로 성별이 작용을 하나,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에는 성별이 변인 간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현숙(1998), 최현정(2006)의 연구에서도 진로준비행동에는 성별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 2) 연령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차이

연령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차이는 다음과 <표 IV-7> 같다.

<표 IV-7> 연령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구분         | 만 13세~15세 (n=41) |         | 만 16세~18세 (n=60) |      | 만 19세~23세 (n=31) |      | F     | P      |        |      |
|------------|------------------|---------|------------------|------|------------------|------|-------|--------|--------|------|
|            | M                | SD      | M                | SD   | M                | SD   |       |        |        |      |
| 위기<br>요인   | 우울               | 2.47    | .87              | 2.20 | .88              | 2.41 | .75   | .884   | .416   |      |
|            | 불안               | 2.88    | .84              | 2.53 | 1.06             | 3.05 | .87   | 3.021  | .053   |      |
|            | 개인<br>요인         | 공격성/충동성 | 2.83             | .83  | 2.72             | .69  | 2.88  | .78    | .486   | .616 |
|            | 부정적 자존감          | 3.19    | .79              | 2.76 | .95              | 3.01 | .87   | 1.528  | .222   |      |
|            | 신체차이             | 2.41    | .73              | 2.51 | .80              | 2.61 | .97   | .286   | .752   |      |
|            | 흡연, 음주경험         | 3.10    | .99              | 3.30 | 1.01             | 3.39 | 1.07  | .346   | .708   |      |
|            | 회피중심             | 3.08    | .76              | 2.47 | .90              | 2.82 | .84   | 3.302  | .041** |      |
|            | 학대부모             | 2.33    | .96              | 2.05 | 1.11             | 2.08 | 1.02  | .333   | .717   |      |
|            | 가정<br>요인         | 부모자녀관계  | 2.51             | .61  | 2.43             | 1.00 | 2.39  | 1.04   | .068   | .934 |
|            | 양육태도             | 2.14    | .58              | 1.97 | .66              | 2.10 | .77   | .504   | .606   |      |
| 반사회가정원     | 2.15             | .75     | 2.21             | .97  | 1.77             | .70  | 2.027 | .137   |        |      |
| 가정결손       | 2.54             | .90     | 1.82             | .72  | 1.75             | .69  | 5.439 | .006** |        |      |
| 사회<br>요인   | 학업흥미(저조)         | 2.86    | .78              | 3.01 | 1.04             | 3.15 | 1.00  | .401   | .671   |      |
|            | 또래의 비행           | 2.11    | .92              | 2.33 | .78              | 2.20 | .83   | .505   | .605   |      |
|            | 주변 환경            | 2.29    | .93              | 2.16 | .81              | 2.21 | .87   | .134   | .875   |      |
| 진로의식수<br>준 | 진로결정성            | 3.05    | .25              | 3.33 | .36              | 3.14 | .45   | 4.107  | .019** |      |
|            | 진로참여성            | 3.20    | .48              | 3.52 | .47              | 3.56 | .53   | 2.399  | .096   |      |
|            | 진로독립성            | 3.45    | .47              | 3.62 | .65              | 3.50 | .56   | .619   | .540   |      |
|            | 진로준비성            | 3.06    | .32              | 3.15 | .53              | 3.29 | .49   | 1.152  | .320   |      |
|            | 진로타협성            | 2.98    | .54              | 3.18 | .48              | 3.18 | .52   | .794   | .455   |      |
| 진로준비행<br>동 | 정보수집활동           | 2.44    | .41              | 2.38 | .83              | 2.42 | .78   | .053   | .949   |      |
|            | 필요도구 준비          | 2.77    | .41              | 2.46 | .84              | 2.43 | .82   | .386   | .681   |      |
|            | 목표달성노력           | 2.57    | .57              | 2.33 | .84              | 2.43 | .76   | .536   | .587   |      |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자면, 위기요인의 개인요인, 가정요인과 진로의식수준의 진로결정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위기요인의 개인요인인 회피중심 (F=3.302, P<.05), 가정요인의 가정결손(F=5.439, P<.05)에서는 만 13세~15세

에서 높게 인식 하였는데, 이는 어린 시절 때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결손이 위기를 더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의식수준에서 진로결정성  
 (F=4.107, P<.05)에서 만 16세~18세에서 크게 인식하였는데, 이는 고등학생의  
 연령을 지닌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데 스스로 사고를  
 높게 반영하다고 볼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연령이  
 진로를 준비하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려준다.

### 3) 학업중단 시기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차이

학업중단 시기에 따른 차이는 다음 <표 IV-7>와 같다.

<표 IV-8>학업중단 시기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구분         | 초등, 중등학교<br>(n=29) |              | 고등학교<br>(n=74) |              | F           | P              |              |
|------------|--------------------|--------------|----------------|--------------|-------------|----------------|--------------|
|            | M                  | SD           | M              | SD           |             |                |              |
| 개인<br>요인   | 우울<br>불안           | 2.10<br>2.46 | .76<br>.92     | 2.37<br>2.83 | .86<br>1.02 | 2.106<br>2.872 | .150<br>.093 |
|            | 공격성/충동성            | 2.58         | .77            | 2.86         | .70         | 3.280          | .073         |
|            | 부정적 자존감            | 2.71         | .88            | 2.95         | .93         | 1.452          | .231         |
|            | 신체자아               | 2.34         | .72            | 2.60         | .88         | 2.030          | .157         |
|            | 흡연, 음주경험           | 2.98         | 1.06           | 3.43         | .98         | 4.130          | .045**       |
|            | 회피중심               | 2.57         | .82            | 2.68         | .91         | .315           | .576         |
|            | 학대부모               | 1.84         | .99            | 2.19         | 1.08        | 2.287          | .134         |
| 가정<br>요인   | 부모자녀관계             | 2.18         | .91            | 2.52         | .99         | 2.614          | .109         |
|            | 양육태도               | 1.78         | .69            | 2.13         | .67         | 5.611          | .020**       |
|            | 반사회가정원             | 1.93         | .79            | 2.08         | .90         | .611           | .436         |
|            | 가정결손               | 1.95         | .96            | 1.85         | .68         | .341           | .560         |
| 사회<br>요인   | 학업흥미(저조)           | 2.73         | 1.00           | 3.15         | .97         | 3.730          | .056         |
|            | 또래의 비행             | 2.21         | .93            | 2.28         | .76         | .178           | .674         |
|            | 주변 환경              | 1.95         | .77            | 2.29         | .84         | 3.570          | .062         |
| 진로의식<br>수준 | 진로결정성              | 3.28         | .40            | 3.22         | .39         | .410           | .523         |
|            | 진로참여성              | 3.58         | .56            | 3.46         | .47         | 1.337          | .250         |
|            | 진로독립성              | 3.40         | .55            | 3.63         | .61         | 2.906          | .091         |
|            | 진로준비성              | 3.26         | .42            | 3.15         | .52         | .875           | .352         |
|            | 진로타협성              | 3.16         | .48            | 3.15         | .51         | .007           | .934         |
| 진로준비<br>행동 | 정보수집활동             | 2.55         | .61            | 2.34         | .83         | 1.510          | .222         |
|            | 필요도구 준비            | 2.50         | .64            | 2.46         | .85         | .042           | .838         |
|            | 목표달성노력             | 2.39         | .60            | 2.38         | .85         | .004           | .950         |

학업중단 시기는 위기요인의 개인요인, 가정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고등학교시기에 중단한 청소년들이 개인요인의 흡연 및 음주경험(F=4.130, P<.05)과 가정요인의 양육태도(F=5.611, P<.05)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할 때, 흡연 및 음주 경험이 높아지며, 이 시기의 학업중단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가 좋지 않음을 알려준다.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 학업중단 기간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차이

학업 중단 기간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다음 <표 IV-9>과 같다.

<표 IV-9>학업중단 기간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구분         |          | 2년 미만(n=70) |      | 2년 이상(n=33) |      | F     | P      |
|------------|----------|-------------|------|-------------|------|-------|--------|
|            |          | M           | SD   | M           | SD   |       |        |
| 위기<br>요인   | 우울       | 2.30        | .89  | 2.30        | .74  | .000  | .987   |
|            | 불안       | 2.76        | 1.02 | 2.64        | .96  | .302  | .584   |
|            | 공격성/충동성  | 2.79        | .74  | 2.77        | .72  | .015  | .903   |
|            | 부정적 자존감  | 2.84        | .95  | 2.97        | .85  | .494  | .484   |
|            | 신체자아     | 2.55        | .83  | 2.49        | .88  | .124  | .725   |
|            | 흡연, 음주경험 | 3.27        | 1.07 | 3.37        | .92  | .196  | .659   |
|            | 회피중심     | 2.66        | .90  | 2.62        | .87  | .046  | .831   |
| 가정<br>요인   | 학대부모     | 2.08        | 1.04 | 2.12        | 1.18 | .025  | .876   |
|            | 부모자녀관계   | 2.41        | .96  | 2.46        | 1.01 | .057  | .812   |
|            | 양육태도     | 2.14        | .65  | 1.81        | .72  | 5.412 | .022** |
|            | 반사회가정원   | 2.07        | .94  | 1.96        | .76  | .362  | .549   |
|            | 가정결손     | 1.97        | .73  | 1.70        | .81  | 2.746 | .101   |
| 사회<br>요인   | 학업흥미(저조) | 3.00        | .96  | 3.09        | 1.08 | .147  | .702   |
|            | 또래의 비행   | 2.26        | .77  | 2.26        | .90  | .000  | .991   |
|            | 주변 환경    | 2.21        | .85  | 2.15        | .80  | .125  | .724   |
| 진로의식<br>수준 | 진로결정성    | 3.28        | .37  | 3.14        | .42  | 2.795 | .098   |
|            | 진로참여성    | 3.49        | .46  | 3.50        | .57  | .005  | .946   |
|            | 진로독립성    | 3.56        | .63  | 3.56        | .55  | .000  | .984   |
|            | 진로준비성    | 3.17        | .51  | 3.22        | .48  | .248  | .619   |
|            | 진로타협성    | 3.13        | .51  | 3.22        | .49  | .786  | .378   |
| 진로준비<br>행동 | 정보수집활동   | 2.29        | .80  | 2.63        | .68  | 4.567 | .035** |
|            | 필요도구 준비  | 2.46        | .84  | 2.51        | .68  | .107  | .744   |
|            | 목표달성노력   | 2.31        | .83  | 2.55        | .66  | 2.090 | .151   |

학업을 중단한 기간에 따른 차이에서는 위기요인의 가정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정보수집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요인인 양육태도( $F=5.412$ ,  $P<.05$ )는 학업을 중단 한지 2년 미만인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가 좋지 않았으며, 진로준비행동의 정보수집활동( $F=4.567$ ,  $P<.05$ )에서는 학업을 중단 후 2년이 지난 기간에 정보에 대한 수집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로의식수준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김선아(2008)의 연구에서도 학업중단 기간은 진로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 4) 학업중단 이유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차이

학업을 중단한 이유를 살펴보면, 위기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정보수집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위기요인의 개인요인인 우울( $F=3.526$ ,  $P<.05$ ), 불안( $F=3.619$ ,  $P<.05$ ), 공격성 및 충동성( $F=2.421$ ,  $P<.05$ ), 부정적 자존감( $F=3.285$ ,  $P<.05$ ), 신체자아( $F=2.041$ ,  $P<.05$ ), 회피중심( $F=3.046$ ,  $P<.05$ )에서 차이가 났으며, 가정요인인 학대부모( $F=5.280$ ,  $P<.001$ ), 부모자녀관계( $F=4.330$ ,  $P<.001$ ), 양육태도( $F=2.492$ ,  $P<.05$ ), 가정결손( $F=2.608$ ,  $P<.05$ ), 사회요인에서는 주변 환경( $F=2.044$ ,  $P<.05$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학업중단 이유를 학교폭력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어려움, 학교생활 부적응 또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일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에서는 필요도구 준비( $F=2.480$ ,  $P<.05$ )에서 학업중단 이유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는데, 학습능력부족으로 인해 관련된 필요 도구들을 갖추고자 하는 모습 등이 보여 진다.

학업을 중단한 이유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은 다음<표 IV-10>와 같다.

<표 IV-10> 학업중단 이유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구분         |          | 친구문제  |      | 교사관계 |     | 학교폭력  |      | 학습능력부족 |      | 학업스트레스 |        | 학교생활부적응 |      | 학업흥미동기부족 |        | 경제적어려움 |       | 기타   |      | F     | P       |
|------------|----------|-------|------|------|-----|-------|------|--------|------|--------|--------|---------|------|----------|--------|--------|-------|------|------|-------|---------|
|            |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         |
| 개인<br>요인   | 우울       | 2.853 | .82  | 2.59 | .55 | 3.38  | 1.28 | 2.65   | .97  | 2.46   | .70    | 2.88    | .67  | 2.30     | 1.00   | 3.00   | .83   | 1.90 | .95  | 3.526 | .001**  |
|            | 불안       | .46   | .95  | 2.80 | .84 | 3.70  | 1.12 | 2.95   | 1.19 | 3.20   | .87    | 3.41    | .94  | 2.83     | 1.08   | 3.46   | .41   | 2.24 | 1.12 | 3.619 | .001**  |
|            | 공격성/중동성  | 2.95  | .66  | 2.97 | .67 | 3.09  | .58  | 2.94   | .58  | 2.81   | .57    | 3.06    | .57  | 2.99     | .741.0 | 3.57   | .62   | 2.47 | .98  | 2.421 | .020**  |
|            | 부정적 자존감  | 3.33  | .91  | 3.00 | .74 | 3.77  | .75  | 3.18   | 1.08 | 3.162  | .84    | 3.28    | .84  | 3.07     | 1      | 3.88   | .19   | 2.46 | 1.02 | 3.285 | .002**  |
|            | 신체자아     | 3.15  | .82  | 2.83 | .86 | 3.46  | .96  | 2.61   | 1.36 | .66    | .90    | 2.80    | .84  | 2.71     | .80    | 2.13   | .64   | 2.17 | .83  | 2.041 | .050*   |
|            | 흡연, 음주경험 | 3.22  | .87  | 3.56 | .91 | 3.16  | .88  | 3.56   | .96  | 3.56   | 1.00   | 3.49    | 1.18 | 3.20     | .83    | 4.66   | .57   | 2.82 | 1.14 | 1.189 | .314    |
|            | 회피중심     | 3.16  | .78  | 3.01 | .76 | 3.22  | .56  | 2.90   | 1.12 | 2.96   | .81    | 3.25    | .72  | 2.73     | .93    | 3.16   | .44   | 2.07 | .907 | 3.046 | .004**  |
| 위기<br>요인   | 가정       |       |      |      |     |       |      |        |      |        |        |         |      |          |        |        |       |      |      |       |         |
|            | 학대부모     | 2.57  | 1.20 | 2.31 | .96 | 2.25  | .98  | 2.68   | 1.44 | 2.40   |        | 2.46    | 1.29 | 2.16     | 1.25   | 3.50   | 1.80  | 1.45 | .68  | 5.280 | .000*** |
|            | 부모자녀관계   | 2.98  | 1.01 | 2.36 | .80 | 2.80  | .48  | 2.71   | .97  | 2.62   | 1.20   | 2.85    | 1.09 | 2.49     | 1.20   | 3.66   | 1.17  | 1.96 | .85  | 4.330 | .000*** |
|            | 양육태도     | 2.05  | .77  | 2.10 | .65 | 1.95  | .67  | 2.17   | .63  | 2.06   | 1.21   | 2.12    | .63  | 2.04     | .75    | 3.16   | .57   | 1.78 | .79  | 2.492 | .017**  |
|            | 반사회가정원   | 2.57  | 1.15 | 1.93 | .71 | 1.86  | .82  | 2.23   | 1.23 | 2.45   | .59.97 | 2.48    | .95  | 1.80     | .95    | 2.33   | .50   | 1.85 | .84  | 1.560 | .147    |
|            | 가정결손     | 2.00  | .61  | 1.84 | .78 | 1.87  | .56  | 1.95   | .84  | 2.21   | .78    | 2.13    | .80  | 1.87     | .77    | 3.33   | .80   | 1.68 | .80  | 2.608 | .013**  |
| 사회<br>요인   | 학업흥미(저조) | 3.49  | 1.05 | 2.95 | .89 | 3.77  | 1.06 | 3.64   | 1.07 | 3.16   | .88    | 3.29    | .79  | 3.13     | .96    | 2.88   | .83   | 2.56 | 1.31 | 1.164 | .329    |
|            | 또래의 비행   | 2.35  | .84  | 2.27 | .89 | 1.93  | .74  | 2.17   | .62  | 2.19   | .70    | 2.53    | .74  | 2.23     | .86    | 2.26   | .23   | 1.88 | .95  | .850  | .561    |
|            | 주변 환경    | 2.48  | .86  | 2.35 | .68 | 1.95  | .57  | 2.73   | .94  | 2.37   | .96    | 2.52    | .84  | 2.34     | .80    | 2.75   | .66   | 1.67 | .67  | 2.044 | .049**  |
| 진로의식<br>수준 | 진로결정성    | 3.14  | .56  | 3.11 | .46 | 2.98  | .26  | 3.11   | .37  | 3.24   | .36    | 3.19    | .29  | 3.17     | .40    | 3.03   | .20   | 3.41 | .36  | 1.197 | .309    |
|            | 진로참여성    | 3.32  | .54  | 3.51 | .45 | 2.813 | .51  | 3.22   | .49  | 3.45   | .43    | 3.36    | .45  | 3.44     | .51    | 3.13   | .30   | 3.60 | .61  | 1.803 | .086    |
|            | 진로독립성    | 3.76  | .58  | 3.48 | .63 | .90   | .58  | 3.75   | .69  | 3.69   | .62    | 3.55    | .61  | 3.67     | .67    | 3.40   | .52   | 3.54 | .58  | 1.535 | .156    |
|            | 진로준비성    | 3.10  | .56  | 3.29 | .55 | 2.60  | .54  | 2.93   | .61  | 3.19   | .57    | 3.33    | .50  | 3.19     | .47    | 2.93   | .37   | 3.10 | .55  | 1.652 | .121    |
|            | 진로타협성    | 3.33  | .35  | 2.99 | .49 | 3.19  | .14  | 3.00   | .57  | 3.43   | .49    | 3.17    | .52  | 3.23     | .36    | 3.57   | .28   | 3.02 | .63  | .360  | .939    |
| 진로준비<br>행동 | 정보수집활동   | 2.51  | .77  | 2.45 | .65 | 1.94  | .97  | 2.48   | .73  | 2.34   | .71    | 2.12    | .88  | 2.41     | .84    | 2.55   | .58   | 2.30 | 1.01 | .873  | .542    |
|            | 필요도구 준비  | 2.50  | .81  | 2.68 | .77 | 2.00  | 1.02 | 2.90   | .85  | 2.54   | .75    | 2.54    | .89  | 2.53     | .86    | 2.26   | .23.4 | 2.34 | .91  | 2.480 | .017**  |
|            | 목표달성노력   | 2.36  | .79  | 2.35 | .78 | 2.16  | 1.04 | 2.35   | .70  | 2.92   | .75    | 2.41    | .80  | 2.37     | .831   | 2.09   | 1     | 2.29 | .96  | 1.852 | .077    |

##### 5) 학업중단 이후 현 활동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차이

학업중단 이후 현 활동을 살펴보자면, 위기요인에서 개인요인, 가정요인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기요인의 공격성 및 충동성( $F=2.378$ ,  $P<.05$ ), 회피중심( $F=2.124$ ,  $P<.05$ )에서는 취업기술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가정요인의 학대부모( $F=2.378$ ,  $P<.05$ ), 부모자녀관계( $F=.030$ ,  $P<.05$ ) 또한 취업기술에서, 반사회적 가족구성원( $F=3.226$ ,  $P<.05$ )은 보호관찰소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학업을 중단 이후 현 활동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은 다음<표 IV-11>와 같다.

<표 IV-11> 현 활동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구분         | 학교복학             |      | 학교전학 |      | 대안학교 |       | 검정고시학원 |      | 일자리취업 |      | 취업기술 |      | 보호관찰 |      | 집을떠나살고있음 |      | 집안일 또는 노름 |      | 기타   |      | F    | P     |        |
|------------|------------------|------|------|------|------|-------|--------|------|-------|------|------|------|------|------|----------|------|-----------|------|------|------|------|-------|--------|
|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       |        |
| 개인<br>요인   | 우울               | 2.16 | .79  | 2.08 | .35  | 1.75  | 1.06   | 2.26 | 2.26  | 2.14 | .65  | 3.00 | .56  | 2.26 | .56      | 2.58 | .94       | 2.60 | .63  | 1.83 | .62  | .488  | .841   |
|            | 불안               | 2.65 | 1.38 | 3.40 | .56  | 2.40  | 1.13   | 2.67 | 2.67  | 2.92 | .82  | 4.00 | .43  | 2.80 | 1.05     | 2.70 | 1.12      | 2.81 | .84  | 2.20 | 1.09 | .900  | .510   |
|            | 공격성/충동성          | 2.53 | .55  | 2.64 | 1.31 | 2.57  | 1.01   | 2.72 | 2.72  | 3.12 | .60  | 3.67 | .41  | 2.74 | .64      | 3.07 | .84       | 2.78 | .60  | 2.78 | .92  | 2.378 | .028** |
|            | 부정적 자존감          | 2.75 | 1.25 | 3.66 | .94  | 2.66  | .47    | 2.82 | 2.82  | 3.47 | .72  | 4.16 | .63  | 3.53 | .90      | 3.27 | 1.42      | 2.84 | 3    | 2.33 | 1.05 | 1.868 | .083   |
|            | 신체자아             | 2.35 | .30  | 3.40 | .28  | 2.40  | .28    | 2.48 | 2.48  | 2.67 | .88  | 2.90 | .70  | 2.04 | .97      | 2.70 | .77       | 2.61 | .96  | 2.60 | .83  | 1.707 | .117   |
|            | 흡연, 음주경험<br>회피중심 | 3.87 | 1.31 | 3.62 | .88  | 2.87  | .17    | 3.20 | 3.20  | 3.94 | .71  | 4.43 | .42  | 3.95 | .67      | 3.66 | .86       | 3.01 | 1.05 | 3.50 | .70  | .737  | .641   |
| 위기<br>요인   | 학대부모             | 2.25 | 1.89 | 3.25 | 1.06 | 1.75  | 1.06   | 2.00 | 2.00  | 2.42 | 1.28 | 4.25 | .28  | 3.10 | 1.08     | 2.58 | 1.53      | 2.30 | .96  | 1.87 | .62  | 2.318 | .032** |
|            | 부모자녀관계           | 1.95 | .82  | 3.80 | .28  | 2.20  | 1.69   | 2.27 | 2.27  | 2.81 | 1.27 | 3.95 | .82  | 2.92 | 1.00     | 3.26 | 1.36      | 2.69 | .69  | 2.55 | .68  | 2.349 | .030** |
|            | 양육태도             | 2.06 | .87  | 2.37 | .17  | 2.25  | 1.76   | 1.95 | 1.95  | 2.19 | .53  | 2.50 | .00  | 2.25 | .25      | 2.45 | .510      | 2.09 | .64  | 1.87 | .43  | 1.069 | .390   |
|            | 반사회가정원           | 1.90 | 1.18 | 2.40 | 1.69 | 1.40  | .56    | .90  | 1.90  | 2.51 | 1.38 | 3.25 | 1.77 | 3.28 | .85      | 2.80 | 1.46      | 2.53 | .70  | 1.65 | .80  | 3.226 | .004** |
|            | 가정결손             | 1.93 | .65  | 1.37 | .53  | 1.25  | .35    | 1.83 | 1.83  | 2.00 | .76  | 2.75 | .35  | 2.15 | .62      | 2.04 | .84       | 2.42 | .82  | 1.56 | .65  | 1.004 | .434   |
| 사회<br>요인   | 학업흥미(자녀)         | 3.50 | 1.68 | 4.00 | .94  | 2.50  | 2.12   | 2.85 | 2.85  | 3.54 | 1.13 | 3.33 | .66  | 3.40 | .79      | 3.50 | .75       | 2.89 | .75  | 2.50 | 1.10 | .863  | .538   |
|            | 또래의 비행           | 2.05 | .64  | 2.10 | 1.27 | 2.60  | 1.41   | 2.13 | 2.13  | 2.38 | .80  | 2.20 | .76  | 2.36 | .63      | 2.16 | .59       | 2.41 | .76  | 2.90 | .50  | 1.067 | .391   |
|            | 주변 환경            | 2.81 | 1.59 | 2.25 | .35  | 2.00  | 1.41   | 2.04 | 2.04  | 2.53 | 1.15 | 3.50 | .57  | 3.00 | .72      | 3.08 | .91       | 2.19 | .86  | 2.93 | .42  | 1.937 | .072   |
| 진로의식<br>수준 | 진로결정성            | 3.27 | .49  | 3.35 | .49  | 3.30  | .56    | 3.33 | 3.33  | 3.15 | .34  | 3.15 | .12  | 3.14 | .20      | 3.03 | .29       | 3.10 | .32  | 3.20 | .51  | 1.301 | .258   |
|            | 진로참여성            | 3.72 | .26  | 3.15 | .49  | 4.10  | .00    | 3.57 | 3.57  | 3.43 | .37  | 3.32 | .28  | 3.34 | .34      | 3.30 | .40       | 3.40 | .47  | 3.50 | .47  | .599  | .755   |
|            | 진로독립성            | 3.62 | .83  | 3.85 | .63  | 3.90  | .14    | 3.51 | 3.51  | 4.00 | .56  | 3.67 | .86  | 3.98 | .23      | 3.70 | .67       | 3.45 | .42  | 3.65 | .94  | .863  | .538   |
|            | 진로준비성            | 3.07 | .70  | 3.55 | .35  | 3.45  | .63    | 3.22 | 3.22  | 3.12 | .47  | 3.07 | .05  | 3.08 | .26      | 2.88 | .47       | 3.15 | .39  | 3.57 | .26  | .310  | .948   |
|            | 진로타협성            | 2.89 | .57  | 2.92 | .10  | 3.21  | .10    | 3.22 | 3.22  | 3.42 | .52  | 3.17 | .75  | 3.51 | .23      | 2.78 | .69       | 3.13 | .54  | 2.96 | .42  | .843  | .554   |
| 진로준비<br>행동 | 정보수집활동           | 2.25 | .44  | 3.50 | .70  | 2.462 | .35    | 2.30 | 2.30  | 2.01 | .81  | 2.58 | .67  | 2.70 | .54      | 2.97 | .63       | 2.53 | .56  | 3.29 | 1.00 | 1.245 | .286   |
|            | 필요도구 준비          | 2.85 | .75  | 2.90 | .14  | .30   | .98    | 2.40 | 2.40  | 1.97 | .85  | 2.80 | .63  | 2.96 | .65      | 3.03 | .40       | 2.60 | .70  | 3.40 | .58  | 1.053 | .400   |
|            | 목표달성노력           | 2.28 | .86  | 3.42 | .40  | 2.42  | .80    | 2.2  | 2.27  | 2.09 | .85  | 1.92 | .24  | 2.74 | .68      | 2.33 | .64       | 3.04 | .53  | 3.07 | 1.06 | 1.186 | .319   |

### 3.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과 진로의식수준은 부분적으로 정적 및 부적의 관계로 되어 있다. 위기요인은 진로의식수준인 진로결정성, 진로참여성, 진로타협성에서 부적상관관계가 있으며 진로독립성에서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진로준비성에는 부분적으로 부적 및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위기를 자각할수록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참여하며 타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만 주체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진로를 선택에 필요한 사전준비는 위기요인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위기요인(양육태도, 또래비행여부, 주변 환경)은 진로준비행동(정보수집, 도구 준비 및 목표를 노력)에서 부분적으로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여 주는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위기는 진로를 사고하고, 준비 및 행동하는데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IV-16>와 같다.



#### 4.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의식수준에 미치는 위기요인은 다음 <표 IV-12>과 같다.

<표 IV-13> 진로의식수준(전체)에 미치는 위기요인

| 위기요인       | 계수(B) | 표준오차  | $\beta$ | T      | P      |      |
|------------|-------|-------|---------|--------|--------|------|
| 상수         | 3.595 | 0.074 |         | 48.735 | .000   |      |
| 사회요인       | 주변 환경 | -.120 | .031    | -.355  | -3.816 | .000 |
| $R^2=.117$ |       |       |         |        |        |      |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의 사회요인 중 주변 환경은 진로의식수준에 부적인 영향( $\beta=-.355$ )을 미치고 있으며, 진로의식수준에 대해 11.7%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주변 환경요인들이 유해할수록 진로인식에 대한 사고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에 미치는 하위요인은 다음 <표 IV-13>와 같다.

<표 IV-14>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표준오차 | $\beta$ | T      | P    |
|------------|----------|------|---------|--------|------|
| 진로결정성      | 상수       | .131 |         | 29.997 | .000 |
|            | 주변 환경    | .042 | -.406   | -4.604 | .000 |
|            | 학업흥미(저조) | .035 | -.223   | -2.531 | .013 |
| $R^2=.234$ |          |      |         |        |      |
| 진로참여성      | 상수       | .170 |         | 25.203 | .000 |
|            | 부모관계     | .050 | -.261   | -2.670 | .009 |
|            | 우울       | .055 | -.289   | -3.119 | .002 |
|            | 가정결손     | .058 | -.251   | -2.833 | .006 |
|            | 또래비행여부   | .052 | .172    | 2.029  | .045 |
| $R^2=.315$ |          |      |         |        |      |
| 진로독립성      | 상수       | .216 |         | 14.229 | .000 |
|            | 학업흥미(저조) | .061 | .586    | 5.845  | .000 |
|            | 공격,충동    | .083 | -.254   | -2.530 | .013 |
| $R^2=.241$ |          |      |         |        |      |
| 진로타협성      | 상수       | .197 |         | 18.827 | .000 |
|            | 학업흥미(저조) | .052 | -.464   | -4.469 | .000 |
|            | 가정결손     | .060 | -.242   | -2.603 | .011 |
|            | 공격,충동    | .073 | .256    | 2.384  | .019 |
| $R^2=.186$ |          |      |         |        |      |
| 진로준비성      | 상수       | .184 |         | 16.226 | .000 |
|            | 불안       | .047 | .260    | 2.774  | .007 |
|            | 양육태도     | .070 | -.308   | -3.230 | .002 |
|            | 반사회적가족   | .055 | .241    | 2.486  | .015 |
| $R^2=.158$ |          |      |         |        |      |

진로결정성은 주변 환경( $T=-4.604$ ,  $P<.001$ )과 학업흥미( $T=-2.531$ ,  $P<.05$ )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23.4%의 설명력을 지니며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주변 환경들이 유해환경일수록, 학업흥미가 저조할수록 진로결정성이 낮아진다.

진로참여성에서는 위기요인의 부모관계( $T=-2.670$ ,  $P<.05$ ), 우울( $T=-3.119$ ,  $P<.05$ ), 가정결손( $T=-2.833$ ,  $P<.05$ )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비행여부( $T=2.029$ ,  $P<.05$ )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31.5%의 설명을 나타낸다. 이는 부모관계가 좋지 않고 우울하며, 가정이 결손이 될수록 진로참여성이 낮아

지고 있으며, 주변 또래친구들의 비행여부가 잦을수록 진로참여성이 높아진다.

진로독립성은 학업흥미( $T=5.845, P<.001$ )의 정적인 영향을, 공격성 및 충동성( $T=-2.530, P<.05$ )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24.1%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학업흥미가 저조할수록 진로독립성은 높아지고 공격성 및 충동성이 강해질수록 진로독립성은 낮아진다.

진로타협성은 위기요인의 학업흥미( $T=-4.469, P<.001$ ), 가정결손( $F=-2.603, P<.05$ )에서 부적인 영향을, 공격성 및 충동성( $F=2.384, P<.05$ )에서 정적인 영향과 18.6%의 설명력을 지닌다. 학업흥미가 저조할수록 가정결손이 많을수록 진로타협성이 낮아지고 공격성 및 충동성이 강해질수록 진로타협성도 높아진다.

진로준비성에는 불안( $T=2.774, P<.05$ ), 반사회적 가족( $F=2.486, P<.05$ )에서 정적인 영향을, 양육태도( $T=-3.230, P<.05$ )에서 부적으로 미쳤으며 15.8%의 설명력으로 유의하다. 불안이 높고 반사회적인 가족이 있을수록 진로에 대한 준비가 높아지며 양육태도가 좋지 않을수록 진로를 준비하지 않았다.

## 5. 위기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위기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요인은 다음 <표 IV-14>와 같다.

<표 IV-15> 위기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위기요인

| 진로준비행동     |       | 계수(B) | 표준오차 | $\beta$ | T      | P    |
|------------|-------|-------|------|---------|--------|------|
| 상수         |       | 2.209 | .250 |         | 8.828  | .000 |
| 사회요인       | 주변 환경 | .325  | .083 | .382    | 3.920  | .000 |
| 개인요인       | 흡연 음주 | -.151 | .068 | -.217   | -2.231 | .028 |
| $R^2=.125$ |       |       |      |         |        |      |

위기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의 사회요인 중 주변 환경은 정적인 영향을, 개인요인 중 흡연 및 음주에서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진로의

식수준을 분석하는데 12.5%의 설명력을 지닌다. 이는, 주변 환경요인이 많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려하며, 흡연 및 음주가 많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위기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하위요인은 다음 <표 IV-15>와 같다.

<표 IV-16> 위기요인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요인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표준오차 | $\beta$    | T      | P    |
|------------|--------|------|------------|--------|------|
| 정보수집<br>활동 | 상수     | .278 |            | 8.896  | .000 |
|            | 주변 환경  | .092 | .299       | 3.027  | .003 |
|            | 흡연, 음주 | .075 | -.271      | -2.744 | .007 |
|            |        |      | $R^2=.096$ |        |      |
| 필요도구<br>준비 | 상수     | .210 |            | 8.578  | .000 |
|            | 주변 환경  | .089 | .324       | 3.447  | .001 |
|            |        |      | $R^2=.096$ |        |      |
| 목표달성<br>노력 | 상수     | .231 |            | 8.445  | .000 |
|            | 주변 환경  | .099 | .413       | 3.918  | .000 |
|            | 부모관계   | .085 | -.212      | -2.014 | .047 |
|            |        |      | $R^2=.116$ |        |      |

위기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하위요인을 볼 때, 정보수집활동에서는 주변 환경( $F=3.027$ ,  $P<.05$ )에서 정적인 영향을, 흡연 및 음주( $F=-2.744$ ,  $P<.05$ )에서 부적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9.6%의 설명력을 지닌다. 주변 환경이 유해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고자 하며 흡연 및 음주를 많이 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다.

필요도구의 준비에서는 주변 환경( $F=3.447$ ,  $P<.05$ )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9.6%의 설명력을 지닌다. 주변 환경이 유해할수록 필요한 도구 준비를 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에서는 주변 환경( $F=3.918$ ,  $P<.001$ )에 정적인, 부모관계

( $F=-2.014$ ,  $P<.05$ )에서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11%의 설명력을 지닌다. 주변 환경이 유해할수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부모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 6.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인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정량적인 자료 분석 방법으로 t검증을 통해 차이를 비교하였고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결과를 토대로 선행 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이들의 사회의 복귀는 또 다른 부적응 및 중단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데 본 연구에서는 성별(남,여), 연령(초중, 고등학교)과 학업중단시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중단기간(2년 미만, 2년 이상), 학업중단 이유(친구문제, 교사관계, 학교폭력, 학습능력부족, 학업스트레스,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흥미 및 동기부족, 경제적 어려움, 기타-유학 등), 현재 활동(복학, 전학, 대안학교, 학원, 취업, 취업기술훈련, 보호관찰, 집을 떠나 살고 있거나 놀고 있음, 기타)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중단시기와 중단기간의 차이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매해 많은 청소년들이 꾸준히 학교를 나오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흥미 및 동기가 부족이 중단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외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및 부적응 등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적응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에 대한 좌절을 경험 한 후 일탈행위로 이어져 학교 제도권 밖을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틀 안에 벗어나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을 살펴보았더니 검정고시학원이나, 일자리 취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경상 외(2005)의 연구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 및 준비 실태들을 보면 진학을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며 매년 꾸준히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매년 증가되며 이 학업중단은 여러 가지 위기요인들을 초래한다. 이성(2006)은 청소년 개인에게는 교육기회의 상실, 소속감의 상실, 진로개척의 문제 등을 가져오고 사회적으로는 건전한 노동력을 지닌 사회구성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국가 경제력이 낮아지는 등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위기요인을 개인요인(우울, 불안, 공격성 및 충동성, 부정적 자존감, 신체자아, 흡연 및 음주 경험, 회피중심), 가정요인(학대부모, 부모자녀관계, 양육태도, 반사회적 가정구성원, 가정결손), 사회요인(학업흥미, 또래의 비행, 주변 환경)으로 구분된다. 윤철경 외(2005)는 청소년 개인은 위기요인 중 한 가지에 속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한 가지 이상의 복수의 위기상황에 처하기 쉽다고 한다. 학업중단의 특성이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이어지기 때문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에 대한 이해 및 예방을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위기요인의 개인요인, 가정요인, 사회요인 부분적으로 진로의식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학업중단 청소년이 갖고 있는 위기요인은 제2의 위기요인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청소년시기에 가져야 할 발달과제인 진로부분에 일반 청소년들처럼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더욱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도탈락 청소년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를 수행한 김혜영(2002)은 학교중도탈락 현상을 빈곤가정, 결손가정, 비행, 낮은 학업성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탈행동으로 보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 가정, 학교, 사회의 전체의 종합적인 시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은 진로를 생각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들의 위기요인들을 탐색하여 진로 지도에 분명한 진로 목표설정을 행동으로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위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셋째, 개인의 진로를 결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들이 성숙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의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결정성, 진로참여성, 진로독립성, 진로준비성, 진로타협성으로 구분된다. 주금옥(2002)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진로개척에 실패했지만 진로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업에 대한 불안과 갈등을 경험하지만 자신의 진로에 대해 뚜렷한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 주변 또래친구들의 비행이 심각할수록 본인 당사자도 많은 비행으로 이어지게 되며, 일탈행동과 사회부적응으로 실패감을 이어지고 있음을 선행 연구에서 알려준다. 이런 실패감을 경험하는 와중에 또래 일반청소년들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다. 일반청소년인 또래 친구들이 학업이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학습의 동기가 생기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른 진로의식수준 차이를 보면 고등학생의 연령인 경우가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데 더 지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에 흥미가 저조할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원기관, 학원 등을 찾게 되는데, 대부분 가정해체, 편부모 가정이 많은 편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가 준비 및 참여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진로의식수준이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본인이 진로를 생각하고 결정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에 오는 현실사회의 공격성과 충동성 및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 그런 현실 속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 또는 선호하게 된다. 반사회적 가족구성원은 보호관찰인 청소년들에게 높게 나타났는데(차이 분석)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진로 선택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받아들여진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뒤쳐지지 않고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로지원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공급되도록 다차원 방식으로 격려하고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안에서 사회로 들어가는 시기를 일찍 경험하게 되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개척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의 준비,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구분이 되어 진다. 많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기관, 학원

등을 찾아다니며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필요한 도구의 준비 및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평균 점수보다 높았다. 또한 위기요인 중 사회요인이 진로준비 행동에서의 정보수집과 도구준비에 상관성을 보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사회요인이 시사해주는 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준비를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에서 정보를 얻거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크지만, 주변의 지원체계가 좋지 않을수록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금명자 외(2005)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 취업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 응한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검정고시학원, 취업, 집안일을 돕거나 놀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현재의 주변 환경과 현재 하고 있는 활동 간에 관계를 보아, 주변환경이 심각하더라도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김지혜(2008)의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자유로운 시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와 활용을 배우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를 해야 한다고 제시하는데 본 연구자 또한 낮은 진로준비행동을 보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이야말로 제대로 된 진로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황성민, 신현숙(2007)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정규교육의 궤도에서 이탈한 이탈 행동과 부적응 문제의 소유자로 보는 대신, 전문적인 지도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자로 보는 관점을 택하여 이들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진로준비와 관련하여 모색되어 왔지만(최동선, 2003; 진미석, 손유미, 2000; 맹영임 외 2001),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 준비 및 지원 방안 모색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 및 준비에 대한 양적, 질적인 검토가 시도되어야 한다. 더 이상 방황하고 부적응하는 청소년이 아닌 진로에 대해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욕구가 반영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지속적이며 사회적인 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위기요인과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을 좀 더 이해하고 진로에 대한 과정을 조력하도록 모색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 V. 요약,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의식과 진로준비행동을 마련할 수 있게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위기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은 어떠한가?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위기요인, 진로의식 수준, 진로준비행동은 일반적인 특성(성별, 연령, 학업중단시기, 학업중단기간, 학업중단이유, 현 활동)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위기요인, 진로의식 수준, 진로준비행동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위기요인은 진로의식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위기요인의 하위요인인 개인요인은 진로의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위기요인의 하위요인인 가정요인은 진로의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위기요인의 하위요인인 사회요인은 진로의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위기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위기요인의 하위요인인 개인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위기요인의 하위요인인 가정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위기요인의 하위요인인 사회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연령은 13세~21세인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용한 측정도구로 위기요인은 김동일, 홍성두(2006)에 의하여 제안된 청소년 위기평정척도 중에서 위험요소를 수정하여 68 문항을 구성하였다. 진로의식에 대한 측정도구는 Crites(1978)의 CMI(Career Maturity Inventory)를 이현림(1995)이 번역한 것을 인용하였으며 그 중 4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측정도구는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검사지에 이명숙(2002)이 두 문항을 추가한 척도로 18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청소년들의 위기정도,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간의 각 변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과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을 밝히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특성과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성별에 따른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위기요인의 개인요인, 사회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요인의 불안( $t=4.168$ ,  $P<.05$ ), 신체자아( $t=5.063$ ,  $P<.05$ )는 여성에서, 흡연 및 음주경험( $t=5.275$ ,  $P<.05$ )과 사회요인의 주변 환경( $t=4.092$ ,  $P<.05$ )은 남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자면, 위기요인의 개인요인, 가정요인과 진로의식수준의 진로결정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위기요인의 개인요인인 회피중심( $F=3.302$ ,  $P<.05$ ), 가정요인의 가정결혼( $F=5.439$ ,  $P<.05$ )에서는 만 13세~15세에서 높게 지각하였으며, 진로의식수준에서 진로결정성( $F=4.107$ ,  $P<.05$ )에서 만 16세~18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중단 시기는 위기요인의 개인요인, 가정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개인요인의 흡연 및 음주경험( $F=4.130$ ,  $P<.05$ )과 가정요인의 양육태도( $F=5.611$ ,  $P<.05$ )에서 고등학교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업을 중단한 기간에 따른 차이에서 위기요인의 가정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정보수집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년 미만인 경우, 가정요인인 양육태도( $F=5.412$ ,  $P<.05$ )에서, 2년 이상인 경우 진로준비행동의 정보수집활동( $F=4.567$ ,  $P<.05$ )에서 유의미하였다.

학업을 중단한 이유를 살펴보면, 위기요인의 개인요인인 우울( $F=3.526$ ,  $P<.05$ ), 불안( $F=3.619$ ,  $P<.05$ ), 공격성 및 충동성( $F=2.421$ ,  $P<.05$ ), 부정적 자

존감( $F=3.285, P<.05$ ), 신체자아( $F=2.041, P<.05$ ), 회피중심( $F=3.046, P<.05$ )에 서 차이가 났으며, 가정요인인 학대부모( $F=5.280, P<.001$ ), 부모자녀관계( $F=4.330, P<.001$ ), 양육태도( $F=2.492, P<.05$ ), 가정결손( $F=2.608, P<.05$ ), 사회요 인에서는 주변 환경( $F=2.044, P<.05$ )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에서는 필요도구 준비( $F=2.480, P<.05$ )에서 학업중단 이유에 따른 차이가 보여 진다.

학업중단 이후 현 활동을 살펴보자면, 위기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기요인의 공격성 및 충동성( $F=2.378, P<.05$ ), 회피중심( $F=2.124, P<.05$ )에서 차이가 났으며, 가정요인의 학대부모( $F=2.378, P<.05$ ), 부모자녀관계( $F=.030, P<.05$ ), 반사회적 가족구성원( $F=3.226, P<.05$ )에서 현 활동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로써 가설1은 각 요인의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둘째, 위기요인과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분 적으로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요인은 진로의식수준의 진로결정성, 진로참 여성, 진로타협성에서 부분적으로 부적인 관계를, 진로독립성과 진로준비성에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진로준비행동에서는 정보수집, 도구 준비 및 목표를 노력에서 부분적으로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가설 2은 부분적 으로 긍정되었다.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은 진로의식수준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의 사회요인 중 주변 환경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 쳤는데, 이는 11.1%의 설명력을 지닌다.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에 미치는 하 위요인을 볼 때, 진로결정성은 주변 환경( $T=-4.604, P<.001$ )과 학업흥미( $T=-2.531, P<.05$ )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3.4%의 설명력을 지닌다. 진로참여 성에서는 위기요인의 부모관계( $T=-2.670, P<.05$ ), 우울( $T=-3.119, P<.05$ ), 가 정결손( $T=-2.833, P<.05$ )에서 부적인 영향을, 또래비행여부( $T=2.029, P<.05$ )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31.5%의 설명을 지닌다. 진로독립성은 학업흥미( $T=5.845, P<.001$ )에서 정적인 영향을, 공격성 및 충동성( $T=-2.530, P<.05$ )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4.1%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진로타협성은 위기요인의 학업흥미( $T=-4.469, P<.001$ ), 가정결손( $F=-2.603, P<.05$ )에서 부적인 영향을,

공격성 및 충동성( $F=2.384, P<.05$ )에서 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이는 18.6%의 설명력을 지닌다. 진로준비성에는 불안( $T=2.774, P<.05$ ), 반사회적 가족( $F=2.486, P<.05$ )에서 정적인 영향을, 양육태도( $T=-3.230, P<.05$ )에서 부적으로 미쳤는데 15.8%의 설명력으로 유의하다. 이로써 가설 3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위기요인의 사회요인 중 주변환경은 정적인 영향을, 개인요인 중 흡연 및 음주는 부적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12.5%의 설명력을 지닌다. 위기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하위요인을 볼 때, 정보수집활동에서는 주변환경( $F=3.027, P<.05$ )에서 정적인 영향을, 흡연 및 음주( $F=-2.744, P<.05$ )에서 부적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9.6%의 설명을 지니며, 필요도구의 준비에서는 주변환경( $F=3.447, P<.05$ )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9.6%의 설명력을 지닌다.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에서는 주변환경( $F=3.918, P<.001$ )이 정적인 영향을, 부모관계( $F=-2.014, P<.05$ )에서는 부적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11.6%의 설명력을 지닌다. 이로써 가설 4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 2. 결론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을 일반적인 특성(성별, 연령, 학업중단시기, 학업중단기간, 학업중단이유, 현 활동)에 따라 부분적으로 크게 자각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성별에서는 위기요인인 개인요인(불안, 신체자아)은 여성이, 개인요인(흡연 및 음주)와 사회요인(주변 환경)에서는 남성이 더 높게 자각을 하였는데, 여기서 여성의 위기요인 자각은 남녀 평등주의적,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높아진 것으로 이옥실(2009)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연령에서는 위기요인의 개인요인(회피중심), 가정요인(가정결손)과 진로의식수준(진로결정성)에서 부분적으로 크게 자각하는데, 위기요인의 경우 만 13세~15세의 경우가 회피와 가정결손에서 위기를 가장 높게 자각하고 있으며, 만 16세에서 18세에는 진로결정성을 더 인식하고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위기요인을 더 자각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가정결손으로 인한 깨어진 가정은 위기에 영향을 작용한다(김연정, 2004; 오승환, 2001).한 인식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진로결정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학업중단 시기는 위기요인의 개인요인(흡연 및 음주경험), 가정요인(양육태도)에서 고등학생 시기에 중단을 한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높게 자각되었는데, 대부분 고등학생 시기에 학업중단률이 높으며 일탈행동과 사회부적응으로 실패감을 크게 경험하고 있음을 알려준다(배영태, 2003; 손승영 외, 2003; 이소영, 2000; 최정자, 2007).

학업을 중단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청소년들은 위기요인의 가정요인(양육태도)를 더 크게 지각하고 있으며, 2년 이상이 경우 진로준비행동(정보수집활동)을 자각하고 있다. 문제행동에 대한 비일관적인 태도 등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결손은 위기요인에 미친다는 선행연구(유성경, 2000; 구본용 외, 2003)를 보아도 가정요인은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학업을 중단한 이유를 살펴보면, 위기요인의 개인요인(우울, 불안, 공격성 및 충동성, 부정적 자존감, 신체자아, 회피중심)과, 가정요인(학대부모, 부모자녀관계, 양육태도, 가정결손), 사회요인(주변 환경)에서 학교 폭력, 학교생활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차이를 보이며, 진로준비행동(필요도구 준비)에서는 학습에 대한 능력 부족으로 필요 도구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부적응과 경제적인 수입으로 인해 위기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반면, 학습에 대한 저조한 성적이나 능력부족으로 인해 관련된 필요 도구들을 준비해 가는 모습을 알 수 있다.

학업중단 이후 현 활동을 살펴보자면, 위기요인의 개인요인(공격성 및 충동성, 회피중심)과 가정요인(학대부모, 부모자녀관계, 반사회적 구성원)에서 취업기술,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에게 높은 자각을 보인다. 대부분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및 직업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데, 사회와 접촉을 할수록 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과 진로의식수준은 부분적으로 정적 및 부적 인 관계로 되어 있다. 위기요인은 진로의식수준인 진로결정성, 진로참여성, 진로타협성에서 부적상관관계가 있으며 진로독립성에서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진로준비성에는 부분적으로 부적 및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위기를 자각할수록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참여하며 타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만 주체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진로를 선택에 필요한 사전준비는 위기요인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위기요인(양육태도, 또래비행여부, 주변 환경)은 진로준비행동(정보수집, 도구 준비 및 목표를 노력)에서 부분적으로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여 주는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위기는 진로를 사고하고, 준비 및 행동하는데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의식수준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기요인의 하위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진로의식수준에서는 위기요인인 사회요인(주변 환경)의 부적영향으로 주변 환경이 많아질수록 진로의식수준이 낮아졌는데, 범죄관련 환경(유성경, 2002) 등의 유해환경의 접촉은 진로를 사고하고 준비하는데 부적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진로의식수준의 하위요인으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자면, 위기요인의 주변 환경, 학업흥미는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쳐 진로를 선택에 있어 혼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되며, 부모관계, 우울, 가정결손은 진로참여성에서 부적영향으로 직업에 대해 별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진로가 저절로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위기요인이 되고, 공격성 및 충동성은 진로독립성에서 의존성이 높음을 알려준다. 학업흥미, 가정결손은 진로타협성에서 자신의 욕구와 현실적 여건을 잘 조화시키지 못하여, 내적인 혼란과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이고, 양육태도는 진로준비성에 부적영향을 미치는데, 진로 준비를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또래비행여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성도 높아지며, 학업흥미여부는 진로독립성을, 공격성 및 충동성은 진로타협성을, 불안 및 반사회적 가족이 있을수록 진로준비성에 정적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을 사전에 파

악을 하고 개입을 한다면 진로에 대한 준비 및 사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기요인의 하위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진로준비행동에서는 위기요인인 사회요인(주변 환경)은 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변 환경이 많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이루어지고, 개인요인(흡연 및 음주)에서는 부적영향으로 흡연 및 음주의 경험이 있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았다. 많은 청소년들이 음해환경에 대한 노출과 흡연 및 음주 등의 비행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접촉은 진로를 준비하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준비가 사전에 잘 파악하여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특성(성별, 연령, 학업중단시기, 학업중단기간, 학업중단이유, 현 활동)은 위기요인,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보이며, 위기요인과 진로의식수준, 진로준비행동 간에도 부분적으로 상관 및 영향이 있음을 알려준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진로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학교 밖으로 밀려 나온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자신의 미래를 사고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위기요인들을 알게 하고 그 위기요인을 극복하여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 3.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론으로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조사 대상에 대한 표본추출에 있어서 검정고시학원, 야간학교에 다니거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 103명으로 제한하였기에 학업중단 청소년

을 대표하지 못했다. 표본을 더 크게 하여 비교 연구를 하였다면 더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를 알고 준비 및 결정 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요인으로) 위기요인과 일반적인 특성을 두었는데, 좀 더 다양한 범위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미치는지 접근하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여 차이를 알 수 있다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필요로 한, 정확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학업중단 및 위기의 단계별로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로 학업중단의 고, 중, 저 위기 단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에 대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경남숙(2008). **위기청소년의 진로의식**.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향자(1992). **한국대학상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부(1997). **교육복지종합대책(2)**.
- 구본용, 유제민(2003). **중퇴에 관한 위험 및 보호요인의 신경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 구자경, 홍지영, 장유진(2001). **청소년의 자퇴욕구실태와 관련 특성 연구: 학교는 떠나려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상담전략**.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2020 미래사회와 연구(1)**.
- 권지은(1998).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명자(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사회문제(1).
- 금명자, 권해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2004). **학교밖 청소년 종합지원체제 구축 운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총서)
- 김건선(1978). **인문계 고교생들의 직업성숙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식(1997). **중,고교 중퇴생의 문제에 관한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7(1).
- 김동일, 홍성두(2006). **청소년 위기 평정척도 개발 연구**. 한국교육학회 2006년 춘계 학술대회 교육심리학회. 경인교육대학교.
- 김명권(1991). **비행청소년의 집단치료**. 부산소년원.
- 김명숙(2007). **청소년 위기 극복을 위한 대처방안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2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남(1994).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아(2008).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순규(2001). **학업중퇴 결정요인**.
- 김승오(1976). **인문고등학교 비진학생 진로희망실태와 직업지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정(2004). **가출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위험요소와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2008).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1982). **진로교육 실천방안을 위한 탐색적 일 연구**. 건국대부설교육연구소 논문집 제 6집. 건국대부설교육연구소.
- 김혜영(2002). **학교중도탈락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 맹영임, 김진호, 정철영(2001). **중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문성숙(2010).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비교**.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민(1998). **복교를 원하는 중퇴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4(1).
- 박연숙(1999).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학업중퇴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완성(2002). **고교생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심리적 독립성, 성역할 정체감,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창남, 임성택, 전경숙, 김성식(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박현선(1999).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한국아동복지학 8.
- 박현선(2003). **청소년의 학업중퇴 적응과정에 대한 현실기반 이론적 접근**. 한국 사회복지학 53.

- 배영태(2003). **중고생의 중도탈락 인과모형 검증과 판별척도 개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1981). **교육학 용어사전**. 배영사.
- 서정아, 권혜수, 정찬석(2006).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성윤숙(2006).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개발원.
- 손승영 외(2003). **학업중퇴자 현실과 대안**. 서울: 학지사.
- 신현숙, 구본용(2002). **중퇴생, 중퇴 고위험 및 저위험 재학생의 비교: 개인 및 사회 환경 변인들을 중심으로**. 교육심리 연구 16(3).
- 양국선, 장성숙(2001).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 야간실업 고등학교 근로청소년 대상**.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 오승환(2001). **저소득층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기섭(1975). **생애의 설계를 위한 생활지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 유성경, 안희정, 이소래, 오익수(1999). **청소년 탈비행화 조력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2000).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비행수준별, 유형별 위험요소 및 보호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상담원
- 윤미경(2002). **잠재적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적응 유연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홍익대학교 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여각, 박창남, 잔병유, 진미석(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윤은희(2007). **위기청소년 위험요소척도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철경, 김성경, 김현주, 박병식, 이봉주, 장해영(2005). **청소년 보호정책 실태와 발전 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경상, 김진호, 오해섭, 김희진, 김재민(2003). **한국청소년 패널조사 1**.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상, 조혜영(2006).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 이동진(2009). **위기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비행유형에 미치는 영향**. 가  
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2006).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성장환경, 문제해결능력 및 자아탄  
력성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2000). **학교중단 청소년의 중퇴이후 적응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이숙영, 남상인(1997). **중도탈락 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청소년대  
화의 광장.
- 이시형, 박현선, 이세용, 이소임, 이영란(2002). **청소년의 학업중퇴에 관한 연구**.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재창(1998). **생활지도**. 서울:문음사.
- 이재창, 최운실, 정영애, 최경선(1983). **청소년 의식구조 및 형성배경**. 서울: 한  
국교육개발원.
- 이현림(1998). **학교진로상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  
리치료 10(1).
- 이현숙(1998). **고등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2001). **학업중도탈락의 실태와 학교에서의 대처방안**.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장재홍, 양미진(2002). **청소년의 세계와 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
- 장정임(2009).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 및 진로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재일, 조운희(1990). **집단경험이 빈곤결손가정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8.
- 전종희(2005).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중퇴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가 심  
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9(2). 한국청소년학회.
- 주금옥(2001). 정규교육 중도탈락 청소년의 진로장애 지각에 관한 탐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승희, 이은경, 이지은, 최수미, 정찬석(2001). 청소년비행예방 및 개입전략개발을 위한 종단연구 1. 한국청소년상담원.
- 진미경(1999).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진로유형화와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미석, 손유미(2002).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체제 구축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청소년위원회(2005).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 최동선(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선미(1998) 지역사회복지관과 학교사회사업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신(2001). 청소년 폭력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총서 1.
- 최은영 외(2006). 여중생의 진로의식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자(2007).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관련 결정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호(2005). 고등학생의 직업관과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필선(2010). 청소년의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위기청소년 발생예방 및 위기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연구보고서.
- 최현정(2006). 희망과 성취목표가 진로포부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표갑수(1993). 학교중퇴의 원인과 과제. 청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
- 한국교육개발원(2007). 교육통계연보.
- 한국청소년상담원(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한달현(1992).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교육개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복남(2004). **수급권가정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상철, 임영식(2004). **청소년심리학**. 서울:교육과학사.

홍임숙(2004). **학교를 떠난 아이들의 세계. 학교중퇴자에 대한 사례연구**. 서강대학교.

황선미, 신현숙(2007). **고등학생과 진로적응훈련 중인 중퇴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진로장애 및 진로결정의 관계 모형검증**. 상담학연구.8(1).

Bogensneider, K. & Small, S., Riley, D.(1994). An Ecological, Risk-Focused Approach- Youth-at-Risk issues. University of Wisconsin-madoson cooperative Extension, *Technical Report #1*.

Campus B. E., Hiden B. R. & Gerhard C. A.(1995). Adolescent Development : Pathway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Crites, J.,O.,(1973). *Th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MI*. Monterey, CA : CTB/Mc Graw-Hill.

Elliott, R. & James, E.(1989). *Qarieties of Client Experience in Psychotherapy :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Clinaical Psychology Review(9).

Garmazy, N(1993). Stress-Resistant Children : The 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Books Supplemaent No.4*, Oxford, England:, Pergamom. 1993.d

Lipsey, M. W. & Derzon, J. H(2000). Predictors of Violent or Serious Delimquency by Age Group : A Comparative Ranking. *Juvenile Justice Bulletin*. April. 2000.

Marrow, G. P.(1986). Standing Practice in the Analysis of Dropouts. *Teachers Collage Record*, 87.

Paschall, M. J., Ennett, S. T., & Flowlling, R. L(1996). Relationship Among Family Charateristics and Violent Behavior By Black and White Male Adolesa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Pollard, J. A.,Hawkons, J. D., & Arthur, M. W(1999). Risk and Action : Are They Both Necessary? *Social Work Research*. 23.

Smith, P.K. and Sharp, S. (1994). The Problem of School Bullying. In Smith P.K. and Sharp, S.(Eds). *School Bullying : Insights and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Swardy, H.(1999). Individual Risk Factrors for Adolescent Sunbstance Abuse. *Drug and Alcohoh Dependence*, 55.

<Abstract>

## The Influences of Crisis Factors on The Career Consciousn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Dropout Youth

Shin, Sun-a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Park, Jung-hwan

This research aims at examining the influences of the crisis factors of school drop-out adolescents on their career awareness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actions, and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1. What are the school drop-out adolescents' crisis factors, career awareness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actions depending on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2. What are the relationships among school drop-out youths' crisis factors, career awareness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actions?
3. How do the crisis factors of school drop-out juveniles affect their career awareness level?
4. What are the impacts of the crisis factors of school drop-out adolescents on their career preparation actions?

---

\*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1.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103 school drop-out adolescents aged from 13 to 21, residing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variables of school drop-out adolescents' crisis factors affecting their career awareness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ac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personal, family and social backgrounds, the career awareness level into career determinedness, career participation, career independency, career compromise and career preparedness, and the career preparation actions into information collection, preparation of necessary tools, goal attainment and social efforts.

The measurement tools used on the school drop-out youths in this research are those for crisis factors, career awareness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actions as follows. First, as for the measurement tools of crisis factors, among the youth crisis measurement criteria suggested by Dong-il Kim and Seong-doo Hong(2006), the crisis factors were corrected and 68 questions were drawn up. Second, for the measurement tools of career awareness, the translation of Crites(1978)'s CMI(Career Maturity Inventory) by Hyeon-rim Lee(1995) was quoted, and among them, 47 questions were made out. Third, with regard to the measurement tools of career preparation actions, two questions made by Myeong-sook Lee(2002) were added to the test questions of career-conforming behaviors developed by Bong-hwan Kim(1997), therefore 18 questions were drawn up in total, and a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them.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SPSS for Windows 12.0 program. A frequency and 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ables of youths' crisis degree, career awareness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actions according to each general and demographic feature. In addition,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find out the correlation among the measured variables, a t-test and an analysis of variance to analyze the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and 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the crisis factors affecting the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the following. First, school drop-out juveniles were clearly aware of their crisis factors, career awareness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actions in part depending on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gender, age, drop-out time, drop-out period, drop-out reason and present activities). To begin with, in terms of the gender, the females realized their crisis more in their individual elements(anxiety, physical ego), and the males in their personal element(smoking and drinking) and social ones(surrounding environments). As for their age, it was higher among the individual crisis factor(avoidance-orientedness), family factor(a broken family) and career awareness level(career determinedness). Among different drop-out periods, teenagers dropping out at middle and high school period displayed a higher level of crisis factors in individual factor(experiences of smoking and drinking) and family element(a nurturing attitude), and those whose drop-out period was less than two years were very conscious of their family factor(a nurturing attitude) while those with more than two-year drop-out period were aware of career preparation action(information collection) more than anything else. Among the drop-out reasons, those experiencing school violence, maladjustment to school life and economic difficulties showed a higher level of crisis factors, such as the personal elements(depression, anxiety, aggression and impulsiveness, negative self-esteem and physical ego, avoidance-orientedness), the family factors(abusing parents, a parents-children relationship, a nurturing attitude, a broken family), and the social factors(surrounding environments), and as for their career preparation actions(preparation of necessary tools), they equipped themselves for necessary tools because of their lack of the capability of learning. With regard to their present activities after drop-out, the youths working or under probation had a higher level of crisis factors of personal element(aggression and impulsiveness, avoidance-orientedness) and family element(abusing parents, a parents-children relationship, antisocial members).

Second, the crisis factors of school drop-out adolescents have a negative relation to their career awareness level, that is, career determinedness, career participation, and career compromise, a positive relation to career independency, and a partial negative or positive relationship with career preparedness, and career preparation actions(information collection, preparation of tools and efforts to attain a goal) have a partial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sub-factors of the

crisis elements(a nurturing attitude, delinquency with peers, surrounding environments).

Third, the social crisis factor(surrounding environments) lays a negative impact on the career awareness level.

Fourth, the social crisis factor(surrounding environments) affects the career preparation actions in a positive way,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individual elements(smoking and drinking) in a negative way.

The research results above prov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drop-out youths(gender, age, drop-out time, drop-out period, drop-out reasons, present activities) cause partial differences in their crisis factors, career awareness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actions, and that the crisis elements, career awareness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actions are correlated and influential in part. School drop-outs have much difficulty in their future career. The intervention methods for them, who have been going through many kinds of trials and errors thinking over and preparing for their future because of their lack of career education, need to be studied so that they can realize and overcome their own crisis factors and carve out future themselves.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is investigated into the relationships and influences of the crisis factors, career awareness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actions of the school drop-out adolescents in Jeju area.



#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미래의 준비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20분 정도로 예상되며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라도 각 문항에 대해 빠짐없이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질문에는 옳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설문지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은 본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신 선 아([ssalhw@hanmail.net](mailto:ssalhw@hanmail.net))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은 빠짐없이 체크해 주십시오.

1. 성별 : 남자 ( ) 여자 ( )

2. 나이 : 만 ( )세

3. 학업중단 시기 :

① 초등학교 ( ) ② 중학교 ( ) ③ 고등학교 ( )

4. 학업중단 기간 :

① 1년 미만 ( ) ② 1년 이상~2년 미만 ( )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 ) ④ 3년 이상 ( )

5. 학업 중단 이유 :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 하세요.

① 친구문제 ( ) ② 선생님과의 관계 ( ) ③ 학교폭력 ( )  
④ 학습능력 부족 ( ) ⑤ 학업스트레스 ( ) ⑥ 학교생활 부적응 ( )  
⑦ 학업흥미/학업동기부족 ( ) ⑧ 경제적 어려움 ( )  
⑨ 기타(써주세요: )

6. 학교를 그만 두신 후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중복응답 가능)

① 다시 학교로 복학하였다.  
②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  
③ 대안 학교에 다니고 있다.  
④ 검정고시 공부하러 학원에 다니고 있다.  
⑤ 일자리를 찾아 취업하였다.  
⑥ 취업하기 위해 기술을 배우고 있다.  
⑦ 소년원에 있다.  
⑧ 보호 관찰 중이다.  
⑨ 집을 떠나 살고 있다.  
⑩ 집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논다.  
⑪ 기타(써주세요: )

7.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 하세요.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외할아버지 ④ 외할머니 ⑤ 아버지 ⑥ 어머니  
⑦ 계부(양아버지) ⑧ 계모(양어머니) ⑨ 형제자매  
⑩ 기타(써주세요: )

II. 다음은 여러분이 현재 자신의 **생각 · 상황 ·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문항들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O표** 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내 용                             | 전혀<br>그렇지<br>않아 | 그렇지<br>않다. | 보통 | 그렇<br>다 | 매우<br>그렇<br>다 |
|----|---------------------------------|-----------------|------------|----|---------|---------------|
| 1  |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 1               | 2          | 3  | 4       | 5             |
| 2  | 늘 마음이 슬퍼진다.                     | 1               | 2          | 3  | 4       | 5             |
| 3  |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 1               | 2          | 3  | 4       | 5             |
| 4  | 나의 잘못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              | 1               | 2          | 3  | 4       | 5             |
| 5  | 자살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본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6  |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 1               | 2          | 3  | 4       | 5             |
| 7  | 나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 1               | 2          | 3  | 4       | 5             |
| 8  | 신경이 매우 날카롭고 불안하다.               | 1               | 2          | 3  | 4       | 5             |
| 9  | 가끔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             | 1               | 2          | 3  | 4       | 5             |
| 10 | 아무 이유도 없이 두려워진다.                | 1               | 2          | 3  | 4       | 5             |
| 11 |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 1               | 2          | 3  | 4       | 5             |
| 12 | 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운다.            | 1               | 2          | 3  | 4       | 5             |
| 13 |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 1               | 2          | 3  | 4       | 5             |
| 14 | 답답해서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 1               | 2          | 3  | 4       | 5             |
| 15 |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      | 1               | 2          | 3  | 4       | 5             |
| 16 | 침착하지 못하다고 꾸중을 들을 때가 자주 있다.      | 1               | 2          | 3  | 4       | 5             |
| 17 | 최근에 나는 자제력을 잃을 때가 많다.           | 1               | 2          | 3  | 4       | 5             |
| 18 |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 1               | 2          | 3  | 4       | 5             |
| 19 | 나는 이제까지 나 자신을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20 | 나는 내가 미워질 때가 가끔 있다.             | 1               | 2          | 3  | 4       | 5             |

| 번호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21 | 가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22 | 나는 몸이 매우 허약한 편이다.                                   | 1         | 2       | 3  | 4   | 5      |
| 23 | 늘 기운이 없고 피곤하다.                                      | 1         | 2       | 3  | 4   | 5      |
| 24 | 나는 나의 외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다.                             | 1         | 2       | 3  | 4   | 5      |
| 25 | 내가 뚱뚱하고 비만인 것이 부끄럽다.                                | 1         | 2       | 3  | 4   | 5      |
| 26 | 나에게 이성을 끄는 매력이 없는 것 같다.                             | 1         | 2       | 3  | 4   | 5      |
| 27 | 나는 흡연한 경험이 있다.                                      | 1         | 2       | 3  | 4   | 5      |
| 28 | 나는 음주한 경험이 있다.                                      | 1         | 2       | 3  | 4   | 5      |
| 29 | 나는 십대들이 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30 | 나는 십대들이 음주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31 | 나는 문제를 나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내 자신을 원망한다.                    | 1         | 2       | 3  | 4   | 5      |
| 32 |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 1         | 2       | 3  | 4   | 5      |
| 33 |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앉아서 고민만 할 뿐이고 실제로 해결하려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34 |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일이 귀찮아서 잠을 청한다.                    | 1         | 2       | 3  | 4   | 5      |
| 35 |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엉뚱한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 1         | 2       | 3  | 4   | 5      |
| 36 |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 1         | 2       | 3  | 4   | 5      |
| 37 | 부모님은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하신다.                                | 1         | 2       | 3  | 4   | 5      |
| 38 |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 1         | 2       | 3  | 4   | 5      |
| 39 |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 1         | 2       | 3  | 4   | 5      |
| 40 |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 1         | 2       | 3  | 4   | 5      |
| 41 |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 1         | 2       | 3  | 4   | 5      |
| 42 |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고 긴장된다.                           | 1         | 2       | 3  | 4   | 5      |
| 43 |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귀여워하신다.                        | 1         | 2       | 3  | 4   | 5      |
| 44 | 우리 식구들은 십대들이 담배를 필수 있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45 | 우리 식구들은 십대들이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번호 | 내 용                              | 전혀<br>그렇지<br>않아 | 그렇지<br>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46 | 나는 부모님에게 왜 혼나는지 모른 채 혼나는 경우가 많다. | 1               | 2          | 3  | 4   | 5         |
| 47 | 우리 부모님은 너무 무섭게 나를 대하신다.          | 1               | 2          | 3  | 4   | 5         |
| 48 | 가족이나 친척 중에 감옥에 갔었던 분이 계신다.       | 1               | 2          | 3  | 4   | 5         |
| 49 | 가족 중 약물 복용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있다.  | 1               | 2          | 3  | 4   | 5         |
| 50 | 비행을 저지르는 형제가 있다.                 | 1               | 2          | 3  | 4   | 5         |
| 51 | 가족 중 가출 했던 혹은 가출 한 사람이 있다.       | 1               | 2          | 3  | 4   | 5         |
| 52 |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는 것을 본 적있다.          | 1               | 2          | 3  | 4   | 5         |
| 53 |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                | 1               | 2          | 3  | 4   | 5         |
| 54 | 부모님이 이혼이나 별거중이다.                 | 1               | 2          | 3  | 4   | 5         |
| 55 | 우리 부모님은 재혼 하셨다.                  | 1               | 2          | 3  | 4   | 5         |
| 56 | 부모님의 실직으로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       | 1               | 2          | 3  | 4   | 5         |
| 57 | 나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없다.                 | 1               | 2          | 3  | 4   | 5         |
| 58 | 나는 공부를 못한다.                      | 1               | 2          | 3  | 4   | 5         |
| 59 |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1               | 2          | 3  | 4   | 5         |
| 60 | 나에게는 일주일에 한번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 1               | 2          | 3  | 4   | 5         |
| 61 | 나에게는 약물 남용(본드,가스)하는 친구가 있다.      | 1               | 2          | 3  | 4   | 5         |
| 62 | 나에게는 가출한 친구가 있다.                 | 1               | 2          | 3  | 4   | 5         |
| 63 | 나에게는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간 친구가 있다.       | 1               | 2          | 3  | 4   | 5         |
| 64 | 나에게는 폭력서클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 1               | 2          | 3  | 4   | 5         |
| 65 | 집 근처에 술집 등 유흥업소가 많다.             | 1               | 2          | 3  | 4   | 5         |
| 66 |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많다.                  | 1               | 2          | 3  | 4   | 5         |
| 67 | 우리 동네에서는 밤중에 다니면 위험하다.           | 1               | 2          | 3  | 4   | 5         |
| 68 |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 1               | 2          | 3  | 4   | 5         |

III. 다음은 여러분이 **진로나 직업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문항들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O표** 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아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나는 가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상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다. | 1         | 2       | 3  | 4   | 5      |
| 2  | 직업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내가 도대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 1         | 2       | 3  | 4   | 5      |
| 3  |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 1         | 2       | 3  | 4   | 5      |
| 4  |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을 해보고 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일을 고르는 것이다.   | 1         | 2       | 3  | 4   | 5      |
| 5  | 내가 원하는 직업은 자꾸 바뀐다.   | 1         | 2       | 3  | 4   | 5      |
| 6  | 직업이란 어차피 확신을 갖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미리 결정해봐야 소용없다.                   | 1         | 2       | 3  | 4   | 5      |
| 7  | 십대에는 장래의 직업에 관해 마음의 결정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8  |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 1         | 2       | 3  | 4   | 5      |
| 9  |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관해 다른 사람들 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10 | 나는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 1         | 2       | 3  | 4   | 5      |
| 11 | 어떤 직업에서든 성공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12 | 수입만 많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상관없다.  | 1         | 2       | 3  | 4   | 5      |
| 13 | 미래란 어차피 불확실한 것이므로 직업을 미리 결정하는 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 1         | 2       | 3  | 4   | 5      |
| 14 |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 1         | 2       | 3  | 4   | 5      |
| 15 | 학업을 마칠 때까지는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겠다.                           | 1         | 2       | 3  | 4   | 5      |

| 번호 | 내 용  | 전혀<br>그렇지<br>않아 | 그렇지<br>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6 |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직업을 선택 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17 | 나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직업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18 |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가져야 하겠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 1               | 2          | 3  | 4   | 5         |
| 19 | 일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일을 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이다.                    | 1               | 2          | 3  | 4   | 5         |
| 20 | 대개 우연히 직업을 가지게 된다.                                 | 1               | 2          | 3  | 4   | 5         |
| 21 | 나는 부모님이 추천해 주시는 직업을 선택할 생각이다.                      | 1               | 2          | 3  | 4   | 5         |
| 22 | 직업을 선택할 때 나는 나 스스로 결정을 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23 |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부모님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24 | 나는 내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다.              | 1               | 2          | 3  | 4   | 5         |
| 25 | 직업 선택에 있어 부모님의 충고를 따르다면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26 | 직업 선택은 본인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 1               | 2          | 3  | 4   | 5         |
| 27 |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하라고 권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28 |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선택해야 할 직업을 권해준다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29 |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직업이 가장 적합한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30 |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번호 | 내 용   | 전혀<br>그렇지<br>않아 | 그렇지<br>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31 |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 1               | 2          | 3  | 4   | 5         |
| 32 | 나는 취업요건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취업요건이란, 일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소질, 능력, 교육, 자격 등을 뜻한다)         | 1               | 2          | 3  | 4   | 5         |
| 33 | 나는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 1               | 2          | 3  | 4   | 5         |
| 34 | 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다.                          | 1               | 2          | 3  | 4   | 5         |
| 35 | 직업을 선택하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 1               | 2          | 3  | 4   | 5         |
| 36 | 나는 직업의 요구 조건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 1               | 2          | 3  | 4   | 5         |
| 37 | 나는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1               | 2          | 3  | 4   | 5         |
| 38 |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관해 의문이 있을 때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다.                                 | 1               | 2          | 3  | 4   | 5         |
| 39 | 먼저 직업을 결정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계획한다.                                     | 1               | 2          | 3  | 4   | 5         |
| 40 | 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한 바가 거의 없다.   | 1               | 2          | 3  | 4   | 5         |
| 41 | 직업을 선택할 때는 여러가지 다양한 직업에 대해 고려해보아야 한다.   | 1               | 2          | 3  | 4   | 5         |
| 42 | 나는 종종 '현재의 나의 모습'과 '직업을 가짐으로써 되고자 하는 나의 모습'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43 |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하고 바라는 때가 많다                            | 1               | 2          | 3  | 4   | 5         |
| 44 | 때때로 자신이 처음에 선택한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 1               | 2          | 3  | 4   | 5         |
| 45 | 나는 '현재의 나의 모습'과 '장래 직장인으로서 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 1               | 2          | 3  | 4   | 5         |
| 46 |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포기 하지 않겠다.   | 1               | 2          | 3  | 4   | 5         |
| 47 | 직업에 대한 나의 목표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결코 그 목표를 달성 할 수 없을 것 같다.                                | 1               | 2          | 3  | 4   | 5         |

IV. 다음은 여러분이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준비하는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문항들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O표** 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내 용  | 전혀<br>그렇지<br>않아 | 그렇지<br>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2  |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3  |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선생님(상담선생님, 사회복 지선생님 포함)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 업)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4  |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팜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 보았다.                | 1               | 2          | 3  | 4   | 5         |
| 5  |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책자나 팜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보 았다. | 1               | 2          | 3  | 4   | 5         |
| 6  |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직업, 진로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방문계획을 세운적 있다.              | 1               | 2          | 3  | 4   | 5         |
| 7  |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프로그램, 전 시회, 설명회등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 다.       | 1               | 2          | 3  | 4   | 5         |
| 8  |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 1               | 2          | 3  | 4   | 5         |
| 9  |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 분야로 가기위한 자격 요건이 무 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 있다.            | 1               | 2          | 3  | 4   | 5         |
| 10 |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직업이나 진로 분야에 종사하시는 전문 가들과 이야기를 나눠 본 적 있다.                | 1               | 2          | 3  | 4   | 5         |

| 번호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아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1 |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 분야에 직접 일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본 적 있다.                      | 1         | 2       | 3  | 4   | 5      |
| 12 |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 받기 위하여 상담기관 등을 방문 한 적 있다.                                       | 1         | 2       | 3  | 4   | 5      |
| 13 |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 본적 있다.                              | 1         | 2       | 3  | 4   | 5      |
| 14 |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들어가기 위해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 하였다.       | 1         | 2       | 3  | 4   | 5      |
| 15 |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들어가기 위해 이미 구입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 준비를 하고 있다.  | 1         | 2       | 3  | 4   | 5      |
| 16 |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 1         | 2       | 3  | 4   | 5      |
| 17 |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방법, 보수,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 1         | 2       | 3  | 4   | 5      |
| 18 |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 한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1         | 2       | 3  | 4   | 5      |

•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